



| | |
|--|---|
| 코스피 3178.74 (+31.37) | 코스닥 969.99 (+2.79) |
| 금리 (미국 3년) 1.134 (-0.024) | 환율 (원/달러) 1125.80 (+3.20) (6일) |



[뉴스]
올해
역대최고 수준
50만 가구 공급
02

美, 코로나 백신 지재권 포기 전세계 공급 확대 길 열린다

바이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WHO 등 국제기구 환영의 뜻

모더나 등 제약업계 즉각 반발
“공장부터 원료 공급도 제한적”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동의의 입장을 밝혔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제약기업들의 거센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행정부는 지적권 보호를 강하게 믿고 있지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권 조항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하지는 않은 국가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과 접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인도와 인도와 남아

프리카공화국 등은 WTO 회원국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동의하는 국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다.

국제 기구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아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결정에 대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USAID) 관리자는 “대담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이라고 평가

하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더 빨리 세상에 내보내고 향후 발생과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지재권 면제 소식이 전해진 후 모더나는 6.2% 하락하며 최근 두달 새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화이자도 2.6% 추락했다. 바이오엔텍은 8.9% 급락했고, 노바백스 역시 11%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이들 기업은 이번 지재권 포기가 결국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도 제한적인데다 백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테판 우블 미국 제약 연구 및 제조업체(PhRMA) 회장은 “오래 지속돼온 미국 정책의 변화는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원재료 공급 제한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6월8~9일 공식 회의에 앞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부유식 해상풍력기’ 모형 살펴보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전시된 부유식 해상풍력기 모형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대사들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뉴스1

M-커버스토리

고가 아파트 지역 규제하자 중저가 지역 배짱매물 속출

부동산 규제와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에도
강남 등 서울 집값 꾸준히 올라
중저가 지역 노원 상승폭 확대

정부가 스물다섯번의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연속이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2~3년이 걸리는만큼 그때까지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관심사다.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과 구로 일대 아파트가 들쭉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달 30일 기준 지역별 주간 상승폭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0.28%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구로(0.20%) ▲금천(0.18%) ▲도봉(0.15%) ▲강남(0.14%) ▲성북(0.14%) ▲강북(0.12%) ▲양천(0.12%) ▲영등포(0.12%) 등 순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4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노원구는 상계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초입기를 하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신청을 마친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58㎡가 7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으며 안전진단모금을 마친 3단지도 같은 면적형이 지난해 10월 6억9000만원에 팔린 후 1억원 가까이 오른 7억8500만원에 매물이 있다.

보람아파트는 전용면적 79㎡가 8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올해 2월 8억4000만원에 팔린 뒤 호가 3000만원이 올랐다. 보람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안전진단 자금 모음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시작을 알렸다.

구로구의 경우 신도림디큐브시티는 전용면적 84㎡가 1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1월 12억원, 12월 13억6000만원에 팔리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지어진 개봉푸르지오도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어섰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9억3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밖에 전용 59㎡가 지난해 6월보다 2억원 오른 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

재계 지주전환 작업에 페어트레이딩 주목

〈고평가 종목 매도하고 저평가 종목 매수〉

SK·현대차 등 지배구조 개편 속도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확대 나서

주요 그룹사의 지주전환에 속도가 붙으며 지주사-계열사 간 페어트레이딩(Pair Trading) 투자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한 SK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등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로 페어트레이딩 방식으로 사용되던 보통주-우선주뿐 아니라 지주사-계열사 방식도 유효한 전략으로 주목됐다. 페어트레이딩은 고평가 종목을 팔고,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 현

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사가 발빠르게 지주사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배회사에 대한 지분요건이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규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그룹은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안에 따라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려야 한다. 올해 개편을 마무리해야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다.

이를 투자 전략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페어트레이딩이 거론된다. 지배구조 이슈로 지주사와 주가가 오른 계열사의 벌어진 스프레드(비교 대상 간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페어트레이딩은 유사한 흐름을 지닌 두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활용해 저평가 종목을 롱(매수), 고평가 종목을 쇼

트(매도)하는 투자기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코카콜라나 펩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보통주와 보통주 간 동일 업종 종목에 적용된다. 주로 헤지펀드 투자에서 롱쇼트 에퀴티(long short equity) 전략의 핵심 매매 기법으로 통한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상황에선 방향성에 상관없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중립형 매매전략이 현재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활용한 페어트레이딩 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각 그룹사의 지주사 전환이 완료되면 지주사와 계열사 간 페어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6일 코로나19 확진자 총 574명... 서울 211명으로 가장 많아
▲ 검찰,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공수처 대변인 소환조사 /사진 뉴스1

▲ 한국 부도위험 2008년 이후 가장 낮아... CDS 프리미엄 ‘19bp’
▲ 민변 “문재인 정부, 개혁 불균형... 검찰에만 국정 집중”



▲ 이낙연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중부세 청년 주거안정예” /사진 뉴스1
▲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7일 소환... 그룹 수사 속도

“올 분양 50만호…역대최고 수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입주물량 46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3차례 29곳서
2.7만호 후보지 선정·후속절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계획은 민간·협회를 취합해 36만2000~39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000가구 등이다. 다만 민간 차원의 계획이 함께 취합돼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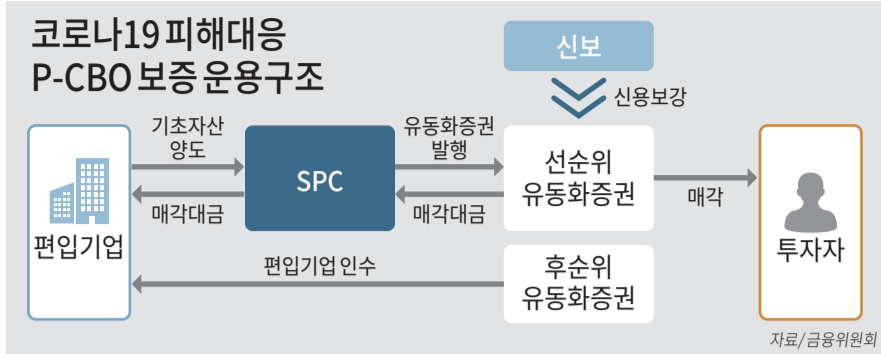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공공 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가구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세 차례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지난주 2차로 1만8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oul.co.kr



코로나로 매출감소 中企에 P-CBO한도 확대 자금공급

〈회사채담보부증권〉

금융위, 기존 지원 프로그램 보완 매출액 한도 ‘3년간 산술평균’ 전환

정부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편해 매출이 전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해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매출액이 과도하게 반영돼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P-CBO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전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차기 1년간 추정 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매출액 기준을 높여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업종 성장성 등을 고려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도 확대한다.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취약업종 등 계열 한도 소진 기업을 위해 계열별 한도도 확대한다. 대기업은 2500억원에서 4000억원, 중견기업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완화한다.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단위로 전환해 전반적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이 경우 개별 단위 1.5~6.0% 범위내 설정된 인수비율이 유동화 Pool단위 1.5~3.0% 범위 내로 설정된다.

P-CBO가 발행되면 선순위 채권은 신보가 보증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 채권은 신보의 보증없이 회사채 발행기업이 매입한다. 인수비율을 축소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편 프로그램과 추진 상황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SPV 연장여부와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은 영방향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달러 약세… 외환보유 규모 ‘사상 최대치’

한은, 지난달 보유액 4523억 달러
61.8만 달러 늘어… 세계 9위 수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규모가 달러 약세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23억1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1억8000만 달러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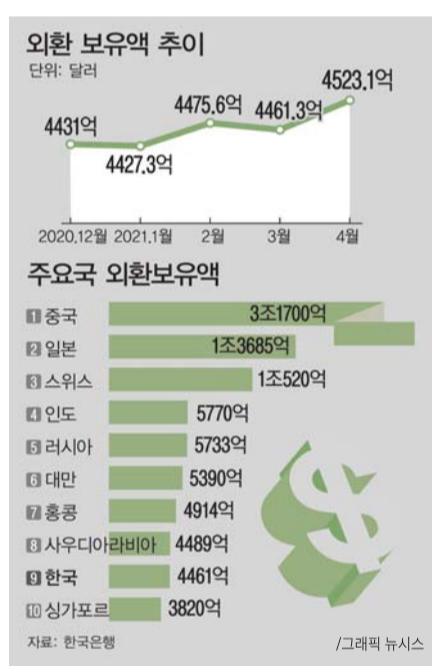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증

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4120억7000만달러로 91.1%를 차지했고 ▲예치금 272억2000만달러(6.0%)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6억9000만달러(1.0%) ▲SDR 35억3000만달러(0.8%)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1700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1조3685억달러 ▲스위스 1조520억달러 ▲인도 5770억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韓 기업가정신지수 9위… 6계단 상승

중기부, 제품·시장 역동성은 ‘1위’
종합점수 1위 ‘인니’ 2위 ‘네덜란드’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지난해 44개국 가운데 9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하며 10위에 들었다. 특히 제품·시장 역동성은 1위, 정부 창업정책 적절성은 5위를 각각 차지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링(GEM)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조사 분야별 지수를 합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5.49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5.13으로 15위였다.

종합점수 1위는 2019년 당시 8위였던 인도네시아(6.39점)가 차지했다. 이외에 네덜란드(6.34점), 대만(6.06점), 인도(6.03점)가 각각 2~4위에 올랐다.

2019년 당시 1위였던 스위스는 지난해 10위로 밀려 한국보다 뒤쳐졌다. 이스라엘, 미국은 11위,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또 제품과 시장의 변화속도를 가능하는 ‘시장의 역동성’이 전체 국가 중 1위(7.9점)를, 정부 창업 지원정책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정부정책의 적절성’은 6.2점으로 전체 국가 중 5위를 각

각 차지했다. 또 지난해 낮게 평가됐던 지표인 ‘대학이상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도 4.6점(2019년 4.19점)으로 전년 대비 19계단 오른 22위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장의 개방성’은 13계단 상승했고, ‘기술이전 지원’과 ‘정부 규제 정책의 적절성’은 6계단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2019년에 이어 전체국가 중 가장 낮은 43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44개 국가가 참여한 ‘국가 전문가 조사’와 달리 ‘일반성인 조사’로 43개 국가가 참여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창업·벤처기업의 도전 정신과 최근 우리 창업 생태계에 도래한 제2벤처붐을 국제적인 연구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면서 “중기부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뿐만 아니라 비대면 분야 등 신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벤처를 집중 지원하고 벤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2벤처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창업·벤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투기억제, 공급확대 등 정책조율 절실... 민간·공공 나눠야

재건축 집값 불안... 서울시-국토부, 공조 이룰까

오세훈 시장 “재건축 속도조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후 즉시 효력 발생하는 개선안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집값이 오르자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집값이 튀어 오르고 있다. 노원과 구로 등 서울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수요자가 이동하고 있는 것. 집값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성공적인 상생정책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풍선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서 공문을 제출했다. 서울시의 제안을 접수 받은 국토부는 건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시가 유예기간 폐지 논의에 앞장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정책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예고가 자칫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실제 발표되는 27일 전까지 5일의 유예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서 잇달아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는 등 집값이 더 뛰는 모습이 나타났다.

압구정과 목동을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 매물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활황을 이었지만 현재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은 노원, 구로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옮겨 붙으며 배짱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시가 정부와 상생 협력을 하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6일 “일부 풍선효과는 있겠지만 요즘은 정비사업 및 증고 규제완화 기대감이 큰 지역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높은 가격과 과세 및 대출 부담 등의 요인으로 거래량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울시와 공조 의사 내비쳐 공공·민간 영역 구분 강조 교란행위 근절 등 목표 같아

◆국토부-서울시 영역 구분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수도권 신규 택지를 2~3개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하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서울시와의 상생에 자신감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표를 연기한 것이 공급 대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2~3개월 늦게 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이 낫다”며 “그 다음에 절차를 2~3개월 만회하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기에 2·4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후보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을 보는 시각 차가 있다는 지적에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거나, 재건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목표가 같다고 본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고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노 후보자의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은 투기억제, 시장안정, 공급확대 등이다”라며 “서로 머리 맞대고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가는 즉 민간이 해야 하는 구역과 공공이 해야 하는 구역을 나누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1면 ‘고가 아파트’서 계속

유예기간 옛새동안 재건축 신고가 행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대체재로 부상하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과 구로에서 이같은 배짱매물이 나오는 것은 서울 고가 아파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지 전까지만 해도 강남 일대에서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황을 이뤘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6일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일대 주요 재건축단지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16건으로 이중 62.5%에 달하는 10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최근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비사업 기대감에 따른 재건축단지 등의 급격한 가격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정비사업의 완화가 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유가 상승 지속시 국내물가 최대 0.8%p 더 오른다

KDI 유가상승 경제 파급효과 보고서
유가별 경제영향 시나리오 분석
유가상승 글로벌 경기회복 동반
배럴당 60달러 달성시 구매력 감소

최근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유가 상승 폭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보고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통해 올해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률이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상승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0.4~0.7%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에 미치는 영향을 고유가와 저유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물가 상승 폭은 0.6%포인트로 예상했다. 여기서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가는 고유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0.8%포인트, 55달러까지 내려가는 저유가에서는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국제유가 상승

은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 시나리오에는 성장률 0.7%포인트, 저유가에서는 0.5%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예비적 수급 및 투기 충격은 그 자체로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 내용을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유가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요인만을 분석한 수치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KDI 설명이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가계는 구매력 감소,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DI는 올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경우 전체 경제의 구매력이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비석유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가계의 소비 지출 부담은 최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가 전체 구매력 감소분(1%)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구매력에서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2%, 18.4%에 불과하다.

천 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석유류, 전기요금 등 생활필수품에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속에 국제유가가 추가로 오를 경우 유가 영향을 받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DI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유가만으로 물가상승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2분기에는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가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재계 지주전환...'서 계속

카카오, 모빌리티 등 신사업 호조... 역대최고 실적 달성

1분기 매출 1조2580억 기록
영업익 1575억 전년동기비 79% ↑

카카오가 인건비 10%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매출이 모빌리티·페이 등 신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79%나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이는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인건비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채널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고,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을 두 자릿수로 늘리는 등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는 6일 올해 1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 늘어난 1조25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5% 증가한 1575억원을, 영업이익률은 12.5%를 기록했다.

1분기 신사업 매출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과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 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898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중

(카카오 2021 1분기 실적 요약)

| 매출 | 1,258 |
|---------|-------|
| 플랫폼 부문 | 668.8 |
| 특비즈 | 361.5 |
| 포털비즈 | 117.5 |
| 신사업 | 189.8 |
| 콘텐츠부문 | 589.2 |
| 게임 | 130.3 |
| 뮤직 | 156.8 |
| 유료콘텐츠 | 174.7 |
| IP 등 기타 | 127.4 |
| 영업이익 | 157.5 |

단위: 십억원 /카카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668.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61.5억원을 기록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4%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증가한 117.5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89.2억원을 기록했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글로벌 거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7%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한 174.7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130.3억원을 달성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56.8억원을 기록했다.

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영상 콘텐츠 매출 증가와 음반 유통 호조로 전 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27.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1년 1분기 영업비용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1004억원으로, 자사주 상여 지급과 신규 채용 확대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1분기 '카카오 지갑'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는데, 카카오톡만으로 연말정산 및 정

부24간편로그인이 가능해졌으며, 지갑 QR로 오프라인 사용처가 확대됐다"며 "지갑이 보관된 신분증을 기반으로 프로필 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인물 검색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또 "하반기를 목표로 카카오 토크 채널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비즈니스적으로 토크 채널을 활용해 효과를 증명했듯, 콘텐츠 생산자와 창작자가 토크 채널을 활용해 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비즈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해외 매출 비중도 두 자릿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페이와 모빌리티 신사업이 터어라운드 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여, 연간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 회사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단기적 성과를 내기 보다 공격적 투자에 나설 계획이며, B2B(기업간) 사업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운정 시전문기자 echo@

페어트레이딩 투자기법 보유기간 길수록 위험도 ↑

예를 들어 지주사(주)한화는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에 대한 지분율을 37%, 34%씩 갖고 있다. 단순 지분율 비교로 페어트레이딩을 활용할 경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한화에너지에 47%(34/(34+37)), 한화솔루션에 53%의 비중을 두는 방식이다. 여러 개의 계열사 지분을 가중평균으로 합성한 후 지주사와 계열사의 페어를 구성해 더 높은 쪽에 투자 비율도 높이면 된다. 계열사 합성 비율에 대해서는 지분율뿐 아니라 지주사와의 상관관계를 따지거나 계열사 간 투자 금액을 따져 결정할 수도 있다.

순환출자 구조가 개선된 곳도 페어트레이딩 대상으로 꼽힌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로 압축된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지난달 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에 따라 0.06%에서 10.44%로 높아졌다. 그가 삼성물산 최대주주이자 삼성생명 2대주주로 올라서며 삼성전자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페어트레이딩 기법을 활용할 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커진다. 스프레드의 절대적인 수준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공매도 규모, 종목의 일일 거래량, 시장 변동성, 주요 거래자들의 수급 상황까지 따져야 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둘 사이 가격 차이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면 곧바로 청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며 "투자 진입과 청산 기준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원금의 5~6%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이를 충족하면 곧바로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했다.

/송태화 기자 avin@

잘 나가는 수입차... 4월 국내 판매량 10만대 육박

메르세데스-벤츠 등록대수 1위

글로벌 수입차 업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특히 독일 3사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가 10만대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4월 수입 승

용차 신규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만5578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적으로는 총 9만7486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다만 4월 신규등록대수는 3월에 비해 6.3% 줄었다. 임한규 한국수입차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으로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8430대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가 6113대로 2위를 기록했으며, 아우디(1320대), 볼보(1263대), 폭스바겐(1080대), 미니(1051대), 지프(1001대) 등의 순이었다. 이어 포르쉐(978대), 포드(902대), 렉서스(826대), 쉐보레(737대), 도요타(523대), 링컨(447대), 혼다(235대), 푸조(221대), 랜드로버



벤츠 더 뉴 E-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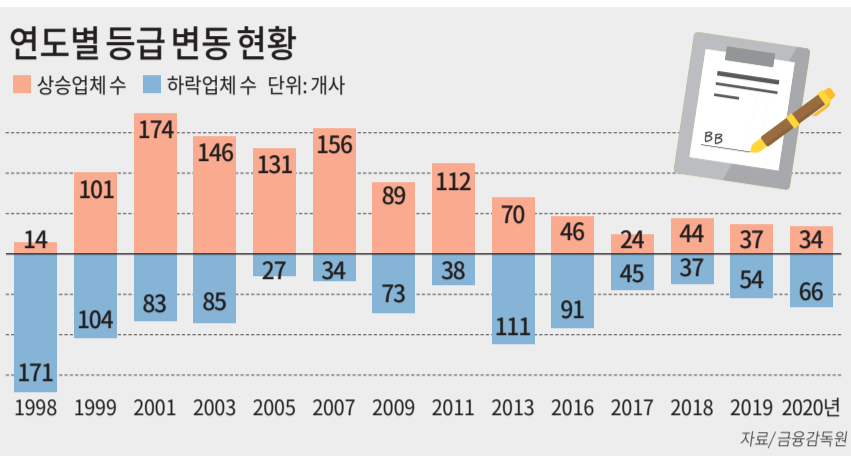
(119대) 등이 뒤를 이었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3월에 이어 벤츠의 E 250(1499대)이 차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용등급 하락한 기업 66곳 코로나 여파에 신용등급 하향세

기업 등급 부정적 전망 크게 늘어
투기등급 비중, 연초비 5.2%p ↑
등급상승 34개사... 3개사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급격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율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곳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등급 하락 리스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무보증회사 등급보유 업체 수는 총 1240개사(중복포함)로 연초 대비 109개사(9.6%)가 늘었다.

투자등급인 AAA~BBB등급 업체 수는 1045개사로 연초 대비 33개사(3.3%) 증가했다. 투기등급인 BB~C 등급 업체 수는 195개사로 연초 대비 76개사(63.8%)나 늘었다.

투기등급 비중은 15.7%로 연초 대비 5.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부도업체는 두 곳으로 연간 부도율은 0.27%다. 전년 0.91% 대비 낮아졌다. 모두 투기등급이었으며, 지

난 2015년 이후 투자등급에서 부도업체는 없었다.

등급상승은 34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감소했다. 반면 등급하락은 66개사로 전년 대비 12개사 증가했다.

등급변동성향은 -2.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해 전년에 이어 하향조정 기조가 유지됐다.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1~2년 전망을 보여주는 등급전망(outlook) 부여업체는 195개사(안정적 제외)다. '긍정적'은 40개사로 20.5%에 불과했고, '부정적'이 155개사로 79.5%를 차지했다.

부정적 비율이 2019년 말 65%에서

2020년 말 79.5%로 14.5%포인트 상승해 등급하락 기조가 다소 강화됐다.

등급감시(rating watch) 등록업체는 10개사다. 이 중 상향검토는 3개사, 하향검토는 7개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회사가 증가하고 등급하락 방향성이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분위기"라며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하락 리스크가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 불이익 최소화

금융위, 中企·소상공인 부담 ↓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올해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 등을 통한 회복가능성이 반영된다.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60.3%는 지난해 매출감소로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이 신용평가과정에서 회복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 보험사(법인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과정에서 회복가능성을 반영한다.

반영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현재 정상영업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회복 등 재무

재무상태 개선가능성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세인 경우 ▲거리두기 완화시 매출 회복가능성이 큰 경우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은 경우 ▲현금보유 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로 판단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라면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같은 방안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사 및 제재도 면제한다.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모형이나, 차주에 대한 정보의 수준·종류가 달라 대출조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금융,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역대 최저 수준 2%대 발행
만기 5년 후 상환 콜옵션 포함

Tier) 수준의 수익성과 지난 2년간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확보한 건전성을 높게 평가 받으며 투자자들의 많은 수요를 이끌어냈다.

2018년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AT1을 발행한 이후 4년 연속 외화 채권을 발행한 것도 이번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인지도를 높인 결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글로벌 우량 투자자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채권은 2019년 발행한 후순위 채에 이어 두번째로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다. 발행 초기부터 채권 성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ESG 관련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ESG 평가기준이 까다로운 다크그린(Dark Green) 투자자를 30% 가량 유치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룹

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동시에 거뒀다.

향후 신한지주는 조달 재원을 발행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ESG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발행으로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를 벗어나 채권인수 주체 및 발행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조달한 재원을 환경 보호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미화 5억달러 규모의 바젤3 적격 외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AT1)을 글로벌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으며, 만기 5년 후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포함돼 있다.

발행금리는 2.875%다. 발행 규모의 8배에 해당되는 39억달러의 주문이 몰리며 최초 제시금리 대비 52.5bp(1bp=0.01%포인트) 축소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글로벌 달러 시장에서 발행된 AT1 중 역대 최저 금리이며, 2%대 금리를 기록한 첫 사례다.

신한지주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톱티어(Top-

KB국민은행, 가입회원 대상 이벤트

퇴설계상담 ▲특별한 DIY카드 메시지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KB골드라이프X에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5명에게 정관장 모바일상품권을, 2등 100

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만든 카드로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골드라이프X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KB골드라이프X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솔루션 협력'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넬리소프트의 AI 기반 세금신고 스마트폰 앱 'SSEM'을 활용해 개인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서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천진혁 넬리소프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집에서 배우는 주택금융교육 재밌지예”

주금공, 온라인 주택금융 강좌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주금공은 주요 사업 및 2021년도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HF 재밌지예(才美之例) 온라인 주택금융 강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재밌지예는 부산지역 사투리인 '재밌지예'의 소리와 '재능(才)기부를 통해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기업의 본보기(例)'라는 의미를 결합했다. 주택금융 분야의 지식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주금공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주금공 주요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슬기로운 HF 탐구생활' ▲최근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회사의 선도적 역할을 소개하는 '핵심만 꼭! ESG채권발행과 HF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인사부 채용담당자가 말하는 'HF인사부에 묻다! 2021년 공채, 어떤 인재를 채용하나요?' 등으로 구성했다.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주금공 홈페이지 및 주금공 유튜브 계정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KB골드라이프X 신규가입시 “선물드리”

이스타, 회생계획 제출까지 2주... 인수자 없을시 파산 위기

우선 매수권자 없어 공고일정 연기
창업주 리스크 등 매각 가시밭길
최근 2~3곳서 인수되지 적극 표명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이어지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20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약 2주의 기간 동안 이스타항공은 당사를 인수할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업계에서는 당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법원도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24억9000만원)를 존속 가치(5억6000만원)보다 약 5배가량 높다고 판단했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 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다. 그만큼 회사의 지속 운영에 따른 가치보다 영업 중단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매수권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공개 매각 공고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중순경 이스타항공의 공개 매각

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로 일정을 한번 연기했고,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시 해당 공고 일정을 미룬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다. 스톡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데,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자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 공개 매각 공고 일정을 미루고, 스톡 호스 방식의 매각 기간을 연장해 2~3곳과 협상 시간을 벌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인한 '창업주 리스크'가 현존하는 만큼 최종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의원의 재판 결과 등이 이스타항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 등으로 새 인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또,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환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전자, 2.5D 패키지 기술 'I-Cube4'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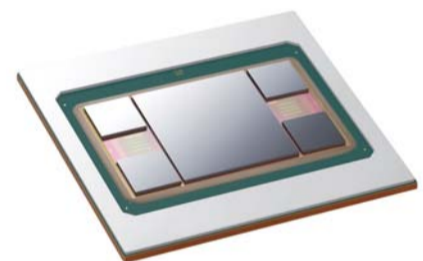
첨단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기술 결합
여러칩 1개 패키지에 배치... 전송속도 ↑

삼성전자가 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패키지 하나에 담는다.

삼성전자는 독자 구조의 2.5D 패키지 기술 'I-Cube4'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술은 로직 칩과 4개의 HBM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것이다.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HPC, AI/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적용해 초미세 배선을 구현하고, 위에 CPU와 GPU 등 로직 반도체와 HBM을 쌓아서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게 하는 이중 집적화 기술로 I-Cube4를 구현했



2.5D 패키지 기술 'I-Cube4' /삼성전자

다. 여러 칩을 1개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 전송 속도는 높이고, 패키지 면적은 줄일 수 있다.

패키지에 실장하는 반도체 칩이 많아질수록 인터포저 면적도 함께 증가하면서 공정상 어려움이 생기는데, 삼성전자는 100마이크로미터 수준 인터포저를 변형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적용해 실제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몰드를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구조는 열 방출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준다.

아울러 패키지 중단 단계에서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량률 미리 걸러내 전체 공정 단계를 줄여 생산 기간을 단축하는데도 성공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마켓전략팀 강문수 전무는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는 'I-Cube2' 양산 경험과 차별화된 'I-Cube4' 상용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HBM을 6개, 8개 탑재하는 신기술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년 로직과 2개의 HBM을 집적한 'I-Cube2' 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로직과 SRAM을 수직 적층한 'X-Cube' 기술을 공개하며 차세대 패키지 기술도 차별화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SK매직-삼성전자, 가전렌탈 사업 맞손

SK매직 플랫폼 통해 삼성가전 렌탈

SK매직이 삼성전자와 함께 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을 SK매직 플랫폼을 통해 렌탈로 판매하는 등 시너지 모색에 나섰다.

SK매직은 윤요섭 대표와 삼성전자 강봉구 한국총괄(부사장)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다양한 가전 제품을 SK매직 플랫폼에서 판매 ▲삼성전자 제품과 SK매직의 차별화된 렌탈서비스를 결합한 상품 출시 ▲SK그룹 관계사 및 다양한 구독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매직은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고객의 요구가 강했던 에어드레서,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렌탈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SK매직은 제품 무상 A/S, 소모품 교체 등 일반적인 렌탈 관리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 없던 공간 전체를 관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규 결합상품과 공간 관리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렌탈 계정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큐셀, 獨 '최고평판 어워드' 2년 연속 1위

최고점 100점 획득

한화큐셀이 독일 '최고 평판 어워드' 전기산업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큐셀은 6일 해당 어워드가 독일 유력 경제지 '포커스 머니'에서 주관하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 받는 브랜드 어워드 중 하나로, 70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워드는 독일 경영경제연구소(IMWF)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반응 약 970만 건을 분석해 평판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다. 한화큐셀은 전기산업 분야에서 최고점인 100점을 획득하며 2년 연속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한화큐셀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제품으로는 태양광 모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며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지붕 공간을 빌려주면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태양광 전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거래 사업과 태양광 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큐셀 김희철 사장은 "한화큐셀은 고객의 에너지 사용 효율과 편리성을 높이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독일 에너지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평가 받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솔루션 판매를 확대해 주요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에어부산 무착륙 학습비행 실시

에어부산이 코로나시대 새로운 비행 체험 프로그램인 '무착륙 학습비행'을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실시한다.

에어부산은 6일 부산 남성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에어부산 사옥과 항공기 기내에서 무착륙 학습비행 프로그램을 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사옥 내 A321-200 항공기 기내를 똑같이 재현한 목업(MOCK UP) 시설에서 ▲체험학습 ▲운항·캐빈 승무원,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 직무소개 ▲유니폼 시작 및 기내 서비스 체험 ▲무착륙 비행체험 등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무착륙 비행체험은 김해국제공항에서 포항, 강릉, 서울을 거쳐 다시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오는 2시간 비행으로 이뤄진다.

/김수지 기자

삼성 OLED 노트북, 다크모드시 전력 25% ↓

픽셀 끄는 방식으로 소비전력 감소

삼성 OLED 노트북이 다크 모드를 이용하면 소비 전력을 25%까지 아낄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모바일 마크 2018' 시나리오를 통해 OLED 노트북 배터리 사용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화이트모드에서는 9.9시간이었지만, 다크모드에서는 11시간을 구동할 수 있었다.

자발광 소자를 사용하는 OLED 디스플레이 특징 때문이다. 다크모드를 사용하면 작동하는 픽셀 비율인 'OPR'이 감소한다.

다크모드는 정보를 담지 않은 바탕을 어둡게 바꾸는 UI 디자인이다. 밝은 화면에 검은 글자가 아닌 어두운 화면에 흰 글자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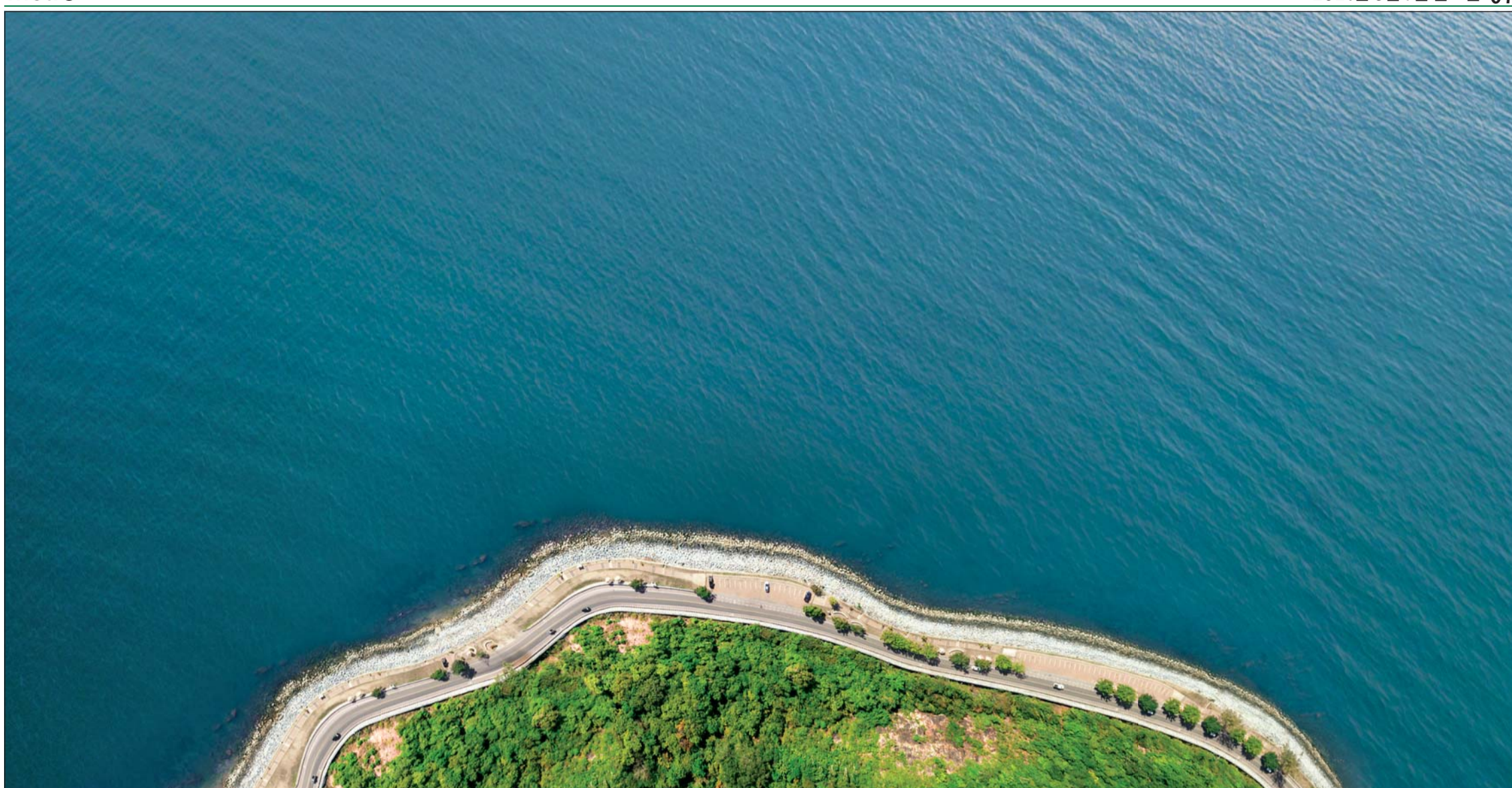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 /삼성디스플레이

자가 새로 내놓은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다크모드를 기본 적용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는 픽셀을 끄는 방식으로 검은 색을 표현한다. 이때는 일종의 암전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반면에 LCD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도 백라이트는 항상 켜져 있다. 이로 인해 '트루 블랙'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크모드를 적용해도 소비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한걸음 한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멀리 가는
친환경 배터리로 세계를 달립니다
환경을 위협하는 '탄소발자국'이
지구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Hi K-Green *Hi* Innovation

웅장한 힘에 탁월한 주행능력, 공간성까지 “터프한 매력, 역시 픽업트럭 맛집”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칸’

육중하고 강인한 외관 눈길
내·외부 모두 적재공간 넉넉
저속주행시 뛰어난 힘 돋보여

쌍용자동차가 압도적인 디자인과 첨단기술력, 가성비비를 갖춘 ‘렉스톤 스포츠 칸’으로 국내 픽업트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최근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한국 토종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수입 차량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가운데 쌍용차가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선보이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4월 초 출시한 더 뉴 렉스톤 스포츠 칸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더 뉴 렉스톤 스포츠 칸은 첨단 기술 적용과 뛰어난 가성비로 쌍용차의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렉스톤 스포츠 칸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시승 모델은 칸 프레스티지 모델로 옵션으로 4균구동시스템, 차동기어잠금장치, 다이나믹패키지2, 3D어라운드뷰시스템,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1,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2, 패션루프랙, 9.2인치 HD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모델로 차량 총가격은 3805만원이다.

첫인상은 긴 차체와 높은 차고 등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전면부는 굵은 수평 대향의 리브를 감싸고 있는 웅장하면서도 익사이트한 라디에이터그릴과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칸 전측면 모습.

수직적 구성의 LED 포그램프가 절제된 형상의 범퍼와 조화를 이뤄 정통 픽업의 퍼프하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웅장한 외모 만큼이나 실내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특히 뒷좌석 아래 공간을 확보해 조그만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적재공간은 1262L 용량에, 최대 7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이는 ‘렉스톤 스포츠’보다 각각 24.8%, 75% 높은 수치이며 ‘리얼 뉴 콜로라도’나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 ‘뉴포드 레인저’ 등 경쟁 픽업트럭과 비교해도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다.

주행 성능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렉스톤 스포츠 칸은 최고출력 187ps,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내는 e-XDi220LET 디젤엔진을 탑재했다. 아이신(AISIN AW) 6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선사한다. 거대한 덩치에 비해 차체가 가볍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화물 적재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저속 주행에서 뛰어난 힘은 매력적이지만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력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렉스톤 스포츠 칸이 가장 큰 매력은 ‘가성비’다. 스포츠 모델의 경우 2439만원부터, 칸은 2856만원부터 3649만원으로 수입 픽업트럭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렉스톤 스포츠 칸은 국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만든 모델인 만큼 위기의 쌍용차가 생존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렉스톤 스포츠 칸 후측면 모습.

두산중, 폐플라스틱으로 수소 만든다

리보테크와 수소화기술 개발 MOU
연 배출 800만 중 절반에 적용 가능

두산중공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이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전문기업인 리보테크와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보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연속식으로 열분해 해서 가스를 생산하고, 두산중공업은 열분해 가스를 수소로 개질하는 핵심설비와 공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하는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원료의 지속 투입으로 연속 생산을 할 수 있어 처리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2021년까지 하루 0.3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개질기를 개발해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리보테크에 설치, 운전할 예정이다. 이후 실증과제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하루 3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송용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매년 국내에 800만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되는데, 이 중 매립, 소각 및 SRF

(고형폐기물) 원료가 되는 약 4000만톤의 폐플라스틱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폐플라스틱 수소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생산된 수소는 추후 연료전지, 수소가스 터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는 두산중공업은 다방면으로 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창원 분사 공장 내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을 연계한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제네시스, 차량 인도 세레머니 확대 운영

기존 G90서 G80·GV80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차량 인도 세레머니 고객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의 독립형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수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차량 인도 세레머니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플래그십 세단 G90에서 G80, GV80까지 확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제네시스 수지의 차량 인도 세레머

니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특별한 차량 인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서비스다. 제네시스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G80, GV80 구매 고객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감시정찰·항공우주 양날개 한화시스템, 1분기 ‘好실적’

영업익 307억, 전년비 180.8% ↑
레이다·항공우주 매출 43% 증가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29.9% 늘어난 3667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38억원으로 148% 증가했다.

이번 실적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다기능레이다 성능개발(천공-PIP) 양산 사업과 AI 보험 자동심사를 위한 차세대 보험코어 시스템 사업 매출이 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차세대 전자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등 기존 주력 사업도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형 미니 이지스’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다기능레이다(MFR)와 전투체계(CMS) 개발 사업

에선 첫 매출이 나왔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9월 5400억원 규모의 KDDX의 CMS·MFR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고액이다.

JTDL(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완성형 체계 개발 사업, 한국무역협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 등 방산·ICT 분야에서 고무 새로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커졌다.

또한 레이다·항공우주 사업부문 매출은 43% 증가했다. 레이다·전자광학 등 감시정찰분야 매출은 1151억원이다. 지난달 처음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장비인 능동위상배열레이다(AESA)와 적외선탐지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적추적장비(EOTGP)를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공군 전투기 피아식별장치(IFF) 업그레이드 사업 등 항공우주 분야에선 443억원의 매출이 나왔다. 감시정찰·항공우주 분야가 1,594억 원으로 1분기 총 매출의 43%가 넘는다.

/양성운 기자

SKT, 유전체 분석 AI알고리즘 개발 나서

지니너스와 신약 타겟 발굴 ‘맞손’

SK텔레콤은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지니너스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약 타겟 발굴을 추진하기로 6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T는 AI 자동화 플랫폼 메타러너(Meta Learner)를 기반으로 지니너스가 제공하는 유전체 및 임상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지니너스는 AI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타겟을 선별해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니너스는 정밀의료 및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인포매틱스(생물정보학)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 임상에서 필요

한 개인 맞춤형 치료에 특화된 유전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 유전체 정밀 분석은 암 진단과 치료, 심근경색이나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한 사람의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위해 생산되는 데이터가 약 100기가바이트(GB)에 이를 정도로서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협력으로 개발되는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을 통해 양사는 인간 유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여러 장기 및 말초혈액에서의 병리학적 특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ini@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종합화학, 폐멸균팩 재활용 팔 건어

매일유업 등 3개사와 업무협약

SK종합화학이 매일유업, 테트라팩코리아, 주신통상과 함께 국내 최초 멸균팩에서 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소재를 뽑아내 재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SK종합화학은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3개사와 멸균팩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복합소재는 산소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이 뛰어나 우유, 주스 등 내용물의 장기 유통이 중요한 멸균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재 생산, 완성품 제조 및 유통, 사용 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재활용에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종합화학 등 4개사는 이번 협력으로 폐 멸균팩의 복합소재까지 재활용하는 길을 열어 넓은 범위의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간 3천톤 규모의 복합소재가 재활용되고, 연간 1만9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나무 2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매일유업은 멸균팩 수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복합소재로 만든 식음료 운반용상자도 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공모주 열기에 '스팩'도 활활... 최고 경쟁률 236대 1

올 청약스팩 평균 경쟁률 99.9 대 1 초기 평균 수익률 7.37% '호조세' 美 시장 따라 국내 상장 증가예고 합병 이후 변동성 확대 주의해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향한 투자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스�팩이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기업공개(IPO) 투자의 대안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직접 증시에 상장하는 공모주를 사려면 수천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스�팩은 신규 상장사의 주식을 비교적 쉽게 살 수 있다.

스팩은 실제 사업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발행주식을 공모한 뒤 그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IPO 열풍에 스�팩에도 물러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모청약 일정을 진행한 스�팩 9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9.91대 1로 집계됐다. 100대 1을 넘기는 곳이 잇따라 터져

〈연도별 스�팩 상장, 합병 건수 추이〉

| 연도 | 스팩상장 건수 | 스팩합병 건수 |
|------|---------|---------|
| 2015 | 44 | 13 |
| 2016 | 12 | 9 |
| 2017 | 202 | 20 |
| 2018 | 20 | 9 |
| 2019 | 30 | 9 |
| 2020 | 18 | 13 |
| 2021 | 9 | 3 |

*올해는 4월까지 기준. 합병 건수는 합병 상장일 기준. /한국거래소

나오는 중이다. 유진스팩6호가 236.2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하나금융스팩17호(168.68대 1), 하나머스트스팩7호(237.46대 1), IBKS스팩15호(101.73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스�팩 18곳의 평균 경쟁률이 3.14대 1을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그간 스�팩은 일반 공모주와 달리 청약 경쟁률 5대 1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통념은 이제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예년과 다른 특이점을 보이는 건 경쟁률뿐만이 아니다. 이전과 달리 상장

초기 수익률도 호조세다. 올해 상장한 신규 스�팩 8개의 평균 수익률은 7.37%를 기록했다. 스�팩은 합병 이슈가 없는 데다 공모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데다 거래량도 많지 않다. 통상 합병 대상을 찾기 전까진 기대 수익률이 0%에 수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성과다.

스팩의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는 투자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꼽힌다. 국내 스�팩은 공모 자금의 90% 이상은 은행 또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해당 예치금에 대해 약간의 이자를 지급한다. 한국은 기준을 2년으로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3년 안에 스�팩 상장 후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연 1.5~2% 안팎)를 돌려준다.

◆미국 따라 스�팩 상장 늘어난다

스팩을 통한 상장 기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시선이 우세하다. 미국 시장 처럼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전통적 IPO보다 더 빠른 자금조달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스�팩 시장에 시선을 돌릴 것이라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 미국 시장에서는 총 300차례의 스�팩 IPO가 진행되면

서 934억달러가 조달됐다. 지난해 전체 기간 합산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스�팩이 열기를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주식시장이 활황이고 상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많다는 점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스�팩을 통한 상장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스�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참여한 발기인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스�팩을 고르는 방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기인 중 합병 이력이 화려한 업체가 있다면 스�팩의 신뢰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합병 건수가 많고, 수익률이 높은 발기인이 대상이다.

발기인들은 공모가 절반인 1000원에 가격이 매겨진 보통주와 전환청구권 행사가격이 1000원인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합병 계획 꼼꼼하게 따져야"

스팩을 통한 비상장사 합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합병상장 발표 전까

지는 합병 대상 기업도, 합병 시기도 알 수 없다. 합병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역시 위험 요인이다. 그동안 국내 스�팩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이러나 '품질주'로 분류돼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스�팩주는 특성상 자본금이 작고 상장주식 수가 적어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널럴 수 있다. 약간의 수급변화에도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계획을 꼼꼼히 살펴 투자해야 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로 과열 우려가 나오는 미국 스�팩 시장과 달리 국내 스�팩 시장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 투자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팩의 합병 성공률도 51%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짜을 만나지 못하는 스�팩도 절반이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며 "우량한 비상장기업과 합병이 결정되면 좋겠지만 합병 결정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타이거 리츠 ETF' 2종, 순자산 1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경기회복 기대감에 우수성과 기록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리츠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미국MSCI리츠 ETF'와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의 순자산이 각각 1000억원을 돌파했다.

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준 TIGER 미국MSCI 리츠 ETF 순자산은 1051억원,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 순자산은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각각 437억원, 427억원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회사 측은 투자자금에 유입된 이유로 안정적인 성과와 꾸준한 배당을 꼽았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리츠 시장이 개선되며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연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TIGER 미국MSCI리츠 ETF는 16.4%, TIGER 부



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13.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 9.6%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수익률 11.3%를 웃도는 수치다.

꾸준한 배당 또한 리츠 ETF의 장점으로 꼽힌다. 작년 한해 동안 TIGER 미국MSCI리츠ETF와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각각 3.3%, 5.4%씩 분배했다. 2020년 코스피 보통주 시가배당률 2.3%, 우선주 시가배당률 2.6%보다 높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

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연간 배당수익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TIGER 미국MSCI리츠 ETF는 미국 리츠 시장 3분의 2를 포함하는 'MSCI USREIT Index'를 추종한다. 지수는 물류, 데이터센터, 쇼핑몰,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136개 리츠로 구성돼 있다.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는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내 리츠와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한다. 지난 3월말 기준 6개 리츠에 60%, 고배당주에 40% 투자하고 있다. 향후 국내 리츠 상품이 다양해지면 리츠 투자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팀 부장은 "리츠 관련 ETF 투자는 거래편의성, 저렴한 보수 등 ETF 장점을 누리며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송태화 기자

현장 최적화 분자진단 플랫폼 주목

IPO 간담회

진시스템

PCR기술로 30분만에 검사 美·中 등 세계 곳곳에 진출 플랫폼 장비 라인업 고도화

분자진단 플랫폼 신기술로 주목받는 진시스템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상장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플랫폼 설치 지역을 넓혀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진시스템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 일정과 향후 전략에 대해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이사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헬스케어와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진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시스템은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플랫폼은 진단장비와 바이오칩 기반 진단키트를 통칭하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분자진단과 면역진단의 장점만을 융합해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분자진단 플랫폼 관련 원천 기술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정밀 하드웨어, 하이 멀티플렉스,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했다. 진시스템의 신속 유전자증폭(PCR) 기술은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의 PCR 기술과 달리 초고속 온도 제어를 통해 얇은 형태의 판형 히트블록 채택으로 열전달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길었던 반응 시간을 90분에서 3분의 1 수준인 30분까지 줄였고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업계 평균 4000만원에 달했던 가격도 1000만원까지 낮춰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회사는 핵심기술 상용화를 통해 2016년부터 일본, 미국, 인도, 중국, 유럽, 중동 등 세계 곳곳에 진출하며 플랫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진시스템은 상장 후 플랫폼 장비의 라인업을 고도화하고 설치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초고속 윈스텝 실시간 진단 타깃 검출이 가능한(UF-400)를 2022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진단 시장 잠재력이 큰 타깃 질환별 신규 콘텐츠를 상용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인체 진단 중심에서 식품검사, 반려동물 시장까지 넓혀나갈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 수는 142만5000주다. 공모예정가는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최대 공모금액은 285억원이다.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오는 13~14일 청약을 거쳐 상반기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았다. /송태화 기자

신한금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홈페이지, HTS에서 신청 가능하다. /백미경 기자

금융투자협회, 2021 신입직원 공개 채용

일반, IT, 변호사, 회계사 4개 부문 면접 등 거쳐 7월중 합격자 발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1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부부는 일반(경영·경제·법학), IT, 변호사, 회계사 등 4개 부문이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NCS 포

함), 전공시험(경영학·경제학·법학·IT 중 택1) 및 논술시험으로 예정돼 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부문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만 실시한다.

한편 금투협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고사장 소독,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계획 마련 등 엄격한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

“고용의 질 나빠졌다… 규제개혁으로 민간 활력 높여야”

경총, 고용 흐름 3가지 특징·시사점
코로나·최저임금 상승에 취업자 ↓
임시·일용직 증가… 고용 불안 심화

〈2021년 1분기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한국경영자총협회

| 전체 임금근로자 | 근속 3개월 미만 | | | | | 근속 3~12개월 미만 | 근속 1년 이상 |
|-------------|-----------|--------|--------|--------|--------|-----------------|-------------|
| | 소계 | 종사상지위별 | | 연령대별 | | | |
| | | 상용직 | 임시·일용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 -20.6만명 | +3.6만명 | 0 | +3.7만명 | -2.9만명 | +6.5만명 | -16.6만명 | -7.6만명 |

고용 시장이 단기·고령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고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 부문 활력 증진과 고용보험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 특징이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코로나19 위기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

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등 3가지 증가라고 봤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6000명 줄었지만,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만6000명 늘었다. 임시 일용직이 3만7000명, 60세 이상이 6만5000명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과 60세 이상이 2019년 1분기 이후 지속 증가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주 15시간 미만취업자도 늘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분기까지 전체 취업자가 평균 38만6000명 감소한 반면, 초단시간 일자리는 평균 3만명 늘어난 것.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 60세 미만에서 더 뚜렷했다.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코로나19 본격화로 1년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전체 실업자 21만8000명 중 85.3%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증가한 실업자 21만8000명 중 80.3%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

불안전 취업자도 1분기 취업자가 38만명 줄어든 것과 달리 25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분이 높았다.

경총은 코로나19 충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이같은 현상으로 고용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고용 불안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총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청년 구직자 절반 이상 ‘불안·무기력’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
49.8%, 중소기업 의향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 자신감, 만족감 등 구직을 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불안, 무기력, 우울함 등 부정적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구직 청년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수준’, ‘일·여가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청년들이 구직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임금 만족도’보다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이 앞섰다.

이같은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년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2021년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구직(복수 응답)하면서 ‘불안’ (82.6%), ‘무기력’ (65.3%), ‘우울함’ (55.3%), ‘좌절감’

(50.1%) 등을 ‘기대감’ (13.1%), ‘자신감’ (6.6%), ‘감사함’ (2.8%), ‘만족감’ (1.1%) 등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의향이 있느냐’는 응답엔 청년 49.8%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30.8%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19.4%는 ‘아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숫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적다고 생각해서’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일·여가의 균형 실현이 어렵다고 느껴서’도 21%로 적지 않았다. ‘기업에 대한 낮은 평판과 주위의 시선 의식’도 13.6%였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구직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 (27.9%)을 1순위로 꼽았다. ‘임금 만족도’ (25.9%)는 2위였다. 다만 복수응답을 통해 ‘1+2+3순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선 ‘임금 만족도’가 70.9%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 (54.7%)을 앞질렀

다. 청년들은 또 81.1%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실제 청년고용률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체감고용률을 40% 미만으로 응답한 청년들은 그 이유에 대해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73.5%),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 (70.3%) 등을 들며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백동욱 청년희망일자리 부장은 “청년구직자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 고용시장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번 조사는 향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를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새로운 인재의 유입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이어주는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의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청년구직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KT 김준근 본부장(왼쪽부터), 우리은행 DT추진단장 황원철 부행장, 한국IBM 송기홍 대표이사 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KT, 우리은행-韓IBM과 ‘AI 랩’ 구축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 고도화

획이다.

KT는 우리은행, 한국IBM과 우리은행의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랩’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3사는 ‘AI 랩’을 통해 ▲금융 언어모델 고도화 ▲불완전판매방지 고도화 ▲AI 모델링을 통한 자산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AI 전환 솔루션을 개발 및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금융 디지털 혁신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금융 언어모델 고도화는 금융권 음향·언어모델을 자연어처리(NLP) 신기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딥러닝해 지속적인 학습으로 금융에 최적화된 언어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또 최근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상품 권유 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AI로 금융 분야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우리은행은 KT와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 충격, 여성에 더 컸다… 취약한 업종에 육아부담까지

여성 취업자수 최대 5.4% 감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기존 경기침체기와 달리 고용 충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됐다. 여성 일자리가 감염병에 취약한 비필수직, 대면접촉 업종의 비중이 높은데다 방역 대책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육아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남성 취업자수는 최대 2.4% 감소에 그친 반면 여

성 취업자수는 최대 5.4%까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성별 고용충격의 격차는 방역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는 시기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남성고용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남성 고용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남성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악화는 일반적인 경기침체기와 비교할 경우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다.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 차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동안 여성 실

업률이 남성실업률보다 1.7%포인트 더 상승했다”며 “성별 고용충격 패턴의 변화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와 일반적인 경기침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과거 경기침체기와 달리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여성 일자리는 감염병에 취약한 비필수직, 고대면접촉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해외 직구도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들어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통계 이래 처음 31조원을 넘어섰다. 옷, 화장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최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36조8301억원) 대비 21.3% 증가한 44조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24조7966억원)보다 26.3%

증가한 31조3169억원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77.0%), 가전·전자·통신기기(45.0%), 음·식료품(35.2%) 등에서 증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20.2%), 화장품(-14.0%) 등은 감소했다.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뜻하는 ‘직구’는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1조4125억원이었다. 이 또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다. 해외직구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5391억원), 중국(4578억원), 유럽연합(2826억원), 일본(733억원) 등의 순이었다. /원승일 기자 won@

1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 통계 이래 첫 31조

신혼집 필수가전 “준비 되셨나요?”



웰스 공기청정기

국내최초 토네이도 흡입시스템과 17도 경사면 송풍으로
위, 아래 모든 공간을 청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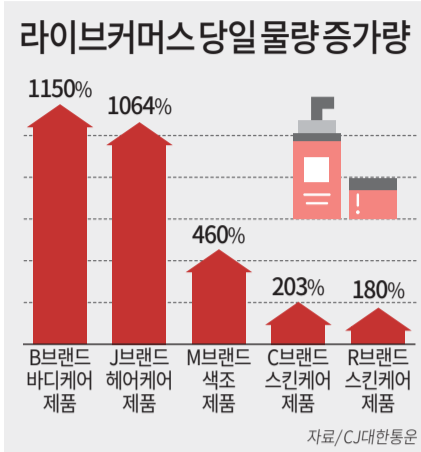


웰스 공기청정기 토네이도 22·26평형 / 30·34평형

제품 좋은점 콕콕 알려줬더니... 하루매출 12배 '라방' 효과

CJ대한통운, 뷰티관련 7개사 대상 브랜드·물량 16만건 빅데이터 분석

바디케어 제품 일평균물량 1150% ↑ 헤어케어 1064%, 색조제품 460% 등



‘화장품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라방)이 대세?’

‘라방’으로 날개를 단 e커머스 회사들의 관련 브랜드가 날개 돋힌 듯 팔리며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이 자사의 고객인 뷰티 관련 회사의 7개 브랜드와 관련한 물량 16만건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실제로 ‘라방’이 진행된 날의 물량이 방송일을 제외한 일평균 물량 대비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B브랜드는

디케어 제품의 경우 라방을 진행한 날 물량이 방송일을 제외한 일평균 물량에 비해 1150%까지 급등했다. 라방을 통해 제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매출이 1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인 라방이 큰 인기를 끌고, 이에 따라 많은 유통회사들이 라방을 적극 활용하면서다.

B브랜드 뿐만 아니라 일평균과 비교해 J 브랜드 헤어케어 제품은 1064%, M 브랜드 색조 제품은 460%, C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은 203%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R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

180%, D 브랜드 네일케어 제품 85%, I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 43%씩 각각 증가하며 라방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이같은 물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해 고객사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 라방 이용자를 위한 ‘라이브 딜리버리’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택배 배송 마감일 끝난 설 연휴 기간에도 라방에서 주문한 상품을 당일 받아볼 수 있어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러 기업이 새로운 트렌드인 라이브커머스에 뛰어들면서 물류와 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MZ세대 사이에서 이색 쇼핑 문화로 부상하고 있으며, SNS를 즐겨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국내만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오는 2023년에는 관련 규모가 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 빅데이터를 보면 라이브커머스의 인기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도 이같은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발맞춘 특화된 물류서비스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가스 대전지역 LPG 충전소에서 LPG 충전을 마친 고객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카네이션을 구입하고 있다.

SK가스, 화훼농가 돕기 식물판매 돌입

대전지역 6개 LPG 충전소에 전시 행복충전 멤버십 포인트 결제 지원

SK가스가 LPG 충전소를 통해 다양한 지역상생 활동을 펼치며 ESG 경영 확대에 나섰다. 차량용 연료 충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 플랫폼의 역할을 더하며 ESG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SK가스는 대전 지역 6개 LPG 충전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까지 각종 꽃과 식물을 판매하는 ‘화훼업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진행한다.

LPG 충전소 내에 화훼조합의 꽃과 식물을 전시하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지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식물을 SK가스의 ‘행복충전’ 멤버십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SK가스는 대전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의 관광 자원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대전 지역 8개 충전소에서 연말까지 LPG 충전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대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를 제공하고, 주요 관광지 방문을 인증한 관광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홈쇼핑, 긴급임시주택 1호 가정 입주

퇴거위기 아동주거 빈곤가정 지원

홈쇼핑이 퇴거위기에 처한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긴급임시주택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6일 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도시공사, 구로구청과 ‘구로구 긴급임시주택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주거 위기가정에 긴급임시주택 제공 사업을 진행해 올해 1호 입주 가정이 탄생했다.

이번 긴급임시주택 1호 가정으로 입주한 민석(가명)이네 가족은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여행사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실직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등 급전적 위기로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구로구 긴급임시주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석(가명)이의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해 절망적인 생각을 하던 중에 긴급임시주택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면서 “퇴거 시 정착금도 지원되는만큼 용기를 내어 잘 살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해외 SNS서 ‘신라면’ 언급량 2배 늘었다

농심, SNS ‘신라면 동향’ 분석 결과 영문 언급건수 총 4만7700여건 달해 1분기 해외매출 1.1억 달러 14% 증가

농심이 글로벌 고객경험관리 플랫폼 ‘스프링클러’와 함께 글로벌 SNS에서 신라면이 언급된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스프링클러는 2009년 설립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온라인 및 SNS상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회사다.

스프링클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레딧, 블로그 등 주요 SNS 미디어에서 영문으로 ‘Shin Ramyun(또는 Shin Ramen)’이 언급된 건수는 총 4만77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1년 전 2만4200여 건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신라면의 해외매출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해 1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번진 홈쿡 트렌드를 타고 신라면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간편하고 맛있는 신라면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신라면이 주목받았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버즈량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3, 4분기보다



외국 유튜버가 올린 비리야(Birria) 신라면 영상. 조회 수가 25만 건을 넘어섰다.

올 1분기에 버즈량이 더 늘어났다”며 “이는 신라면을 호기심에 한두 번 먹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는 의미이며, 신라면이 세계인의 식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올라온 글과 사진을 살펴보면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라면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농심은 해외 소비자들 이 신라면을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프링클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신라면과 함께 언급된 주요 단어들은 신라면활용법(Use Shin Noodles), 계란(Egg), 팽이버섯(Enoki Mushroom) 등 레시피 관련 내용이 크게 늘었다. 또한, 신라면과 함께 ‘레시피(Recipe)’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분기당 100건 미만이었지만,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1분기 479건으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해외 소비자들의 신라면 응용 레시피를 살펴보면, 물을 적게 넣고 반숙 계란을 터뜨려 먹는 ‘쿠지라이(Kujirai)식 신라면’을 비롯해 볶음면으로 즐기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또한, 고기에 건고추,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멕시코식 스투 ‘비리야(Birria)’를 접목한 레시피 등 각자의 입맛에 맞는 재료를 조합한 이색 조리법이 SNS상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신라면을 언제 먹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침이 29.2%, 점심이 33.5%, 저녁이 37.3%로 끼니에 관계없이 골고루 신라면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관계자는 “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식사로 즐길 만큼 신라면이 친숙한 메뉴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이처럼 신라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관 검색어를 통해 지난 1년간(2020년 2분기~2021년 1분기) 신라면과 함께 고려하는 요소가 언급된 포스팅 3050건을 농심과 스프링클러가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순위는 전체의 37.1%를 차지한 ‘편리함’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맛(Taste)’이 26.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삼성SDS, 고객 디지털 전환 앞장

클라우드 기반 IT솔루션 사업 나서

삼성SDS가 클라우드 기반 IT 솔루션 사업으로 고객의 디지털 전환(DT)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SDS는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등 신기술 플랫폼과 협업 및 업무자동화 등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SaaS)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마이 트라이얼

(My Trial) 코너에서 이러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개최한 ‘리얼(REAL) 2020’ 행사에서는 디지털 수준 진단부터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삼성SDS만의 DT 추진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신기술 및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 문의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체험 서비스도 마이 트라이얼 코너에 공개했다. 디지털 전략 및 업무 프로세스, IT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의 DT 수준을 진단하고 간이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이후 상세 진단을 요청하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한 맞춤형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삼성SDS 강석립 IT혁신사업부장(부사장)은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된 DT 추진방법론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SaaS)을 바탕으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임대차 3법 자리잡는 중… 일자리·주거 등 청년의견 수렴”

김부겸 인사청문회 첫날

“공수처·임대차 법안 단독처리 좀 더 숙성시켜 대화 해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전력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러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의혹’ 비판 중심으로 열렸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질의에 답하면서 의혹 관련 질타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혹에 대한 비판을 두고 김 후보자는 반박하기도 했다.

청문회 첫날인 6일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7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점을 두고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꾸짖음을 명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보

다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부동산 안정 ▲민생 돌봄 ▲청년 정책 활성화 ▲국민 통합 등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것이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나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국민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좀 더 숙성을 시켜 대화를 했더라면 국민 납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청년층 민심이 달라진 것과 관련 “세습이나 양극화 같은 단어가(마음) 아프다”며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제

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정책과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故)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은세습 사면’이라는 지적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 통합이나 국민이 전직 두 대통령 일들에 대해 마음으로 용서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

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전력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 저서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점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드린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외교 폐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도 자녀를 외교에 입학시켰다는 지적에 “제가 마치 제 자식을 외교에 넣고 다른 사람이 외교에 갈 수 없게 폐지에 앞장섰다는 건 납득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과 함께 공정선거 관리, 부동산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상품 끼워팔기” vs “경쟁제한 증명 필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학술토론회

이항 고려대 교수
“앱마켓 입점, 결제시스템은 별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수수료, 과도한독과점인지 불분명”

구글이 추진하는 플레이 스토어 내 인앱(In-app) 결제 의무화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6일 공청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확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

결제 시장에서 외부 PG(지불결제)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항 교수도 “앱마켓 입점 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콘텐츠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루고 군소 개발사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文 대통령, 문승욱 산업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11시경 문승욱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6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2050 이행,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장교 특혜 논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매매 후 차익을 실현한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진행했다.

산자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같은 날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보고서는 ‘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됐다.

보고서에서 여야 의원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나온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부동산 시세차익 실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용접공 등 숙련인력 기술 디지털화해 전수

산업부 ‘고도화기술개발’ 신규추진

용접공의 고난도 작업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증강현실(AR) 용접 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돼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인 ‘암묵지(노하우)’를 디지털

화해 AI분석하고, A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휴먼팩터 기반 수동용접기술 현장지식자산화 시스템 기술개발 ▲검수작업자인지능력 증강을 위한 디지털 검수 공정 테이블 및 편의기술 개발 ▲작업 노하우 기반의 생산장비 운영 및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제조산업 현장지식자산화 및 확산을 위한 업종간 핵심역량 분석기술 개발 ▲노동집약적 제조공정의 숙련공 노하우 확산 기술개발 등 5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고숙련자의 핵심역량을 분석해 디지털자산화하고, 노동집약적 공정과 디지털 산업지식 융합을 통해 단계 높은 수준의 공정표준화, 생산성향상을 중점 고려해 추진된다. 또 AR 등 신기술을 품질관리에 적용해 최종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제조공정의 노하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에 대해 5월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사업주관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美 수출입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전환

농식품부, 분실·위조·통관지연 막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해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

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작년 부터는 국가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운행을 진행해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에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선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지역인재 양성 전환형엔 울산·경남 플랫폼 선정 4개 플랫폼에 총 2439억 투입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해 지역 인재를 양성토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자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신규 선정됐고, 울산 지역이 추가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일형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유형인 전환형으로는 울산·경남 플랫폼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지원한다.

올해 8개 지자체(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가 참여하는 4개 플랫폼에 국비 1710억원과 지방비 729억원 등 총 2439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할 이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신규 선정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충남대와 공주대 등 권역 내 24개 대학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카

오모빌리티, 삼성디스플레이 등 68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모빌리티 소재부품 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연구 기반, 충남은 제조업 역량, 세종은 자율주행 실증특구 등 실증 기술·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형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핵심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역 내 24개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합해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대전·세종·충남 공우대학’을 통해 배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려대와 고려대 교우회가 개교 116주년을 맞아 5일 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구자열 고려대 교우회장,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 개교 116주년 기념식 개최

고대인의 날 진행

고려대학교와 고려대 교우회는 개교 116주년을 맞아 5일 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경제 49)과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법학 61)이 수상했다.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은 1955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61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유한양행 대표이사 회장, 공익법인 유한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며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발전과 경제정의 구현에 앞장섰다.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은 1961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하던

해에 KBS 전속가수 시험에 합격해 데뷔한 이래 최초의 학사 여가수이자 최고의 국민가수로 활약했다. 1981년 사회봉사단체인 한국연예인한마음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회장 및 이사장을 맡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4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공로상(고 김동기 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사회봉사상(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이재훈 교우, 의학 86) 등이 수상했다.

고려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된 발전공로상(크립슨어워드)의 수상자로는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독문 69)가 선정됐다.

고려대 소액정기기부클럽(KU 프라이드클럽)의 발전·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2017년부터 시상하는 ‘KU 프라이드클럽어워드’에 올해는 윤화일(경제63) 교우가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교육기관 책임 회피... 정의로운 판결 촉구”

대학생 1.6만명 등록금 반환 요구 서명 “교육부, 교육 관리감독 의무 이행하라”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이 침해됐으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법원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결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학생 소송인단 2744명은 비대면 수업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사립대학 20여 곳을 상대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국 40여 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사립대에는 학생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에는 학생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주현 씨는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다르고 이 차이를 많은 대학생들이 절실히 체감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발언으로 대학생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결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들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운동본부는 대학과 교육부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소송 시작 이후 일부 대학 본부가 소송 참여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고 정부도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소송 취하 강요 전화와 면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공정한 처사

로 인해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11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올해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5% 대학 등록금 동결한 상태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사례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세 발자국에 한 번씩 뚫어가며 삼보일배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 가량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같은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1만 6000여 명의 대학생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ihj@

한양대,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 기관 선정

뮤지컬 전 과정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1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의 플랫폼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한양대는 내달 7일부터 6개월 간 멘토링

프로그램 ‘인투더크리에이션’을 운영해 뮤지컬 극작 및 작곡, 스토리 창작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극작 ▲작곡 ▲스토리 창작 분야에 총 13명의 전문가를 멘토로 초빙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참여교육생(멘티) 26명을 모집한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창의적 소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 창작자 중 뮤지컬 분야(극작, 작곡)와 스토리 창작 분야(시나리오, 드라마대본, 희곡)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각 분야의 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권역에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지원

서북·서남·동북 3개 지역

서울시는 서북·서남·동북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창업밸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가 자리한 서북권에 ‘청년창업 메카’를, 서울대-숭실대-중앙대가 위치한 서남권에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북권에서는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과 함께 대학-지역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창업 시너지를 내고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했다.

시는 창업밸리 기업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대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반기 중 마련할 서울캠퍼스타운 2.0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 유니콘 기업을 품은 캠퍼스타운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 대학, 지역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첫 단체교섭

노조 시설편의 제공 등 안건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지난해 출범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정부와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상건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해 6월9

일 개정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수리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 상정 안건 합의 이후 이번 본교섭으로 이어졌다.

이번 단체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 총 65건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집에서 즐기는

가정용 사우나

사우나 전문기업 리치하우징 홈사우나

H O M E S A U N A

우리집에 **나만의** 사우나가 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족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어디든 설치 가능한 원적외선 사우나와 욕실에 설치하는 호텔식 스팀 사우나!

원적외선 건식 사우나

인체에 열이 직접 침투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사우나의 온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로, 전기 콘센트가 있는 어느곳이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인용(90 x 105 x 190) 기준 235만원

호텔식 스팀 사우나

국내 최고급 호텔인 남산 반얀트리 호텔, 송도 오크우드 호텔 객실에 설치된 명품 스팀사우나를 우리 집 욕실에 설치해 드립니다.



매립형 245만원, 노출형 275만원

리치하우징 1544-6299

전북 “도민 모두 고른 소비활동으로 민생 회복을”

쏘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전액 도비 활용... 추경예산 제출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 지급 방침 생산유발효과 지원액 1.8배 기대



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쏘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고려해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쏘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우리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금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

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하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금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정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13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5월 23일 까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경기도, 10일부터 행정명령 조치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

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정읍시, ‘주향 거리 조성’ 골목경제 회복사업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골목 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정읍의 ‘주향(酒香) 거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골목 경제 회복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피해가 집중된 지역 골목 경제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한 골목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읍시가 제시한 ‘주향(酒香)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국에서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주향(酒香) 거리 조성사업’의 주향(酒香)은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五香) 중 지역 내 전통주를 포괄하는 단어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주요시책 중 하나로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소재로 한 ‘주향(酒香)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강성대 기자

광주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손질

청소·경비원 등 비정규직 대상 휴게실 개·보수 등 16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는 6일 공동주택에서 근무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1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지하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이달 중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

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청소나 경비 일을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인권 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영양 청우회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 수상 모습.

영양 청우회,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영양 청우회는 코로나19 방역 적극 참여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고 6일 밝혔다.

영양 청우회는 코로나19 1차 유행과 3차 유행 시에 영양군 내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앞장서서 2020년 4월 및 12월 중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자체소독반을 결성해 총 10여회의 집중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서 비롯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각종 행사 모임 자제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홍보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영양군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농촌일손 돕기 실시와 무더위가 심한 여름철에는 어르신들 및 취약계층을 위해 수박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인권·평화미술관 전시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저녁노을미술관에서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 중간보고회 하의도에서 오월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2020년 이후 예술공장에서 제작된 작품 100여점을 비롯해 총 2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신안군에서는 2년에 걸쳐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미술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건축디자인 등을 진행해 최근 건축디자인을 확정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술관 소장품과 콘텐츠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화예술공장’을 운영해왔다. ‘예술공장’에서는 흥성담 작가를 비롯한 신의도 출신 전정호 작가와 일군의 예술가들이 미술관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광주은행 가정의 달 이벤트... 가전 등 ‘풍성’

광주은행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가정’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스타일 나는 가전 드림 이벤트 ▲ 31가지 아이스크림 맛보정 이벤트 ▲ 스카이박스 가보정 이벤트 총 3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 스타일 나는 가전 드림 이벤트 전가맹점에서 개인카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 의류관리기, 2등 5명에 공기청정기, 3등 10명에 에어프라이어기를 제공한다.

▲ 31가지 아이스크림 맛보정 이벤트 5월 공휴일(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매주 토·일요일) 중 개인카드 백화점, 대형할인점, 주유소, 음식점에서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모바



일쿠폰 2만원권을 제공한다.

▲ 스카이박스 가보정 이벤트 전가맹점에서 개인카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일일 이용권을 제공한다.

스마트뱅킹(APP), 모바일웹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광주=강성대 기자

부산 자랑 ‘명란젓’, 우체국쇼핑몰 통해 판로개척

부산시와 부산명품수산물협회가 부산의 대표상품인 명란젓의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을 통한 온라인 판로 넓히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명품명란젓의 우수함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수산식품 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해 명란젓 상품을 노출하고 특가 이벤트

등을 진행해 부산명품 명란젓을 홍보할 예정이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명란젓은 부산시에서 부산명품수산물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4개 업체(덕화푸드·대경F&B·회창물산·삼양씨푸드)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낮은 염도의 고급·웰빙 식품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역특산물 쿠폰 할인과 타임 딜, 쇼핑 25시 등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명란젓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고객 이동 더 편리하게”... 유통업계, 모빌리티 사업 키운다

**홈플러스 ‘A&A사업팀’ 출범
롯데마트 폭스바겐 서비스센터 오픈
세븐일레븐 캠핑카 2종 판매
11번가 비대면 모빌리티 판로 개척
쿠방 넥센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세븐일레븐은 국내 최대 RV사 베이런알브이그룹의 에프에프캠핑카와 손잡고 실용성과 활용성을 두루 갖춘 캠핑카 2종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캠핑카는 ‘레이벤’과 ‘베어링640’이다.



장중호 홈플러스 마케팅부부장(왼쪽)과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이사(오른쪽)가 홈플러스 강서점 5층 주차장에 오픈한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언택트 소비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유통업계는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하는 모양새다. 대형마트는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고, 이커머스 업체는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오토바이부터 전기차 등을 판매, 비대면 판로를 열었다.

홈플러스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동차 관련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A&A사업팀’을 출범시켰다.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 대부분이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를 운영,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판매부터 중고차 무인 견적 서비스,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방침이다.

중고차 무인 견적 서비스의 경우 현재 목동점, 송도점, 서수원점 등 14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50개 점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관련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충전연계사업’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95개 점포에 12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23년까지 전 점포 내 2000여 기의 전기차충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춘천점 지하 1층에 ‘폭스바겐 춘천 시티 익스프레스’를 오픈, 고객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 시티 익스프레스에서는 엔진오일, 필터류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교환부터 전문 정비 점검까지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며, 하루 최대 15대까지 정비가 가능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춘천점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를 시작으로 추후 여러 점포에 고객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캠핑카 구매처로 변신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븐일레븐은 국내 최대 RV사 베이런알브이그룹의 에프에프캠핑카와 손잡고 실용성과 활용성을 두루 갖춘 캠핑카 2종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캠핑카는 ‘레이벤’과 ‘베어링640’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캠핑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캠핑카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세븐

일레븐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캠핑카를 선보이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레이벤’은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경차 ‘레이’를 개조한 캠핑카로 일반 캠핑카 대비 저렴한 가격(2915만원)이 강점이다. ‘베어링640’ 모델은 전문 차박캠핑 마니아를 위한 캠핑 전용카다. 침대, 소파, 샤워실, 취사장, 냉장고 등 고급 캠핑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판매가는 7650만원이다.

이커머스 업체는 모빌리티 비대면 판로를 열었다. 11번가는 2020 한해동안 계약 및 출고한 자동차 수만 1800대에 달한다. 온라인에서 구매상담을 신청하고 각 오프라인 대리점으로 연결해 본계약과 차량 인도를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차 판매의 새로운 장을 개척

한 것.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서비스, 쌍용자동차, 푸조, 시트로엥, BMW(코오롱모터스) 등과 신차 판매 및 장기렌터카 구매 고객 상담을 진행했다.

티몬 역시 2017년 초 소형 전기차 다니고를 시작으로 약 5000여대 이상의 전기차 및 오토바이 상품을 성공적으로 예약 판매해 왔다. 최근에는 라이브방송인 티비온을 통해 e커머스 최초로 신차 론칭쇼까지 진행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쿠방은 타이어 상품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넥센타이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쿠방은 전문기사 방문서비스인 ‘로켓설치’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GO’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GO’는 작년에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로, 타이어 전문기가 최첨단 장비와 함께 고객의 차량이 위치한 장소로 방문해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혁신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다.

양사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결합해 긴밀한 혁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연중무휴... 빠르고 저렴... 편의점 반값택배 인기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무라벨 라인업 확대

**GS25 4월 이용건 40만건 돌파
전체 76.2% 2일내 배송 완료**



고객이 GS25에서 점원에게 접수한 반값택배를 건네고 있다. /GS리테일

‘이용료 1600원’의 편의점 반값택배 수요가 비대면 거래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편의점 GS25는 반값택배의 이용 건수가 지난 4월에만 40만 건을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달에도 하루 평균 1만 5000여 건이 접수되면서 5월 한달은 50만 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6.2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택배사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중순 이후 반값택배 이용 고객이 큰 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총 이용 건 수는 연간 5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GS25는 기대하고 있다.

반값택배는 고객이 편의점 GS25 매장에서 택배 발송을 접수하면, 받는 사람이 택배를 찾아가고 싶은 지역의 GS25 매장에서 택배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2019년 3월에 론칭됐다.

택배의 접수부터 수취까지 모든 과정에 편의점 GS25의 유휴물류 배송 인프라가 활용돼 일반 택배의 절반 수준의 저렴한 요금(1600원~2100원)으로 365일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출시 초기 가장 4일이 걸리던 반값택배의 배송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체 건수의 76.2%가 2일만에 배송 완료되며, 이용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GS25는 지난 2년간 반값택배 운영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배송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중고물품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무라벨 탄산수 2종 출시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무라벨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 선보인 무라벨 생수와 4월 선보인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에 이어 ‘무라벨 탄산수’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온리프라이스 스파클링 워터 ECO’ 2종으로 롯데마트 PB(자체 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 상품이다.

실제로 무라벨 생수인 ‘조이스엘 세이브워터 ECO’는 출시 후 3개월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가량 신장했다.

또한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는 당일 새벽 수확 상품으로 오후에 매

장에 입고되는데, 오전부터 고객들의 입고 시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해 롯데마트는 지난 1월 PB생수 전 품목을 포함해 라벨 용기를 사용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들을 무라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에 무라벨 생수와 대추방울 토마토에 이어 13일 전 점에서 ‘온리프라이스 스파클링 워터 ECO(410ml x 20입, 레몬/라임)’를 각 9000원에 선보인다.

‘온리프라이스 스파클링 워터 ECO’는 라벨을 없앤 친환경 제품으로, 상온에서 주입 가능한 최대의 탄산 불륨을 주입해 톡쏘는 맛이 특징이다. 또한 상큼한 시트러스 과실향 제품으로 청량감을 강조해 여름철에 더욱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넓힌다

선물세트·가공식품 등 상생 기획전

SSG닷컴이 올해도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탠다.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생 기획전을 열고 380여 곳의 소상공인 업체에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업체 130여 곳이 선정한 가정의 달 선물세트 및 신선, 가공식품 1800여 종을 최대 30% 할인하는 ‘감사한 마

음, 좋은 선물에 담아 전하세요’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SSG닷컴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체결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온라인 입점 지원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력 상품으로 강원, 전라도에서 나온 지역 특산 한우와 가성비 우수한 망고 혼합 선물세트 등을 제안하며, 구매 수량이 늘어날수록 할인 혜택이 커

지는 ‘다다익선’ 혜택 등을 함께 제공해 고객 혜택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SSG닷컴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상공인 x SSG’ 상생 기획전을 전개해오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업체 380여 곳에 대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기획전에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2019년 6월~2020년 2월) 대비 55% 늘었으며, 대표적으로 식품 협력업체인 그랜드위즈 주식회사, 진성비엔씨는 이 기간 매출이 직전해 동기 대비 각각 3배, 2배 이상씩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

수도권 70개 점포 5000개 물량 확보

이마트가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6일부터 성수점, 왕십리점, 영등포점 등 수도권 70여개 점포에서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2입·사진)’ 초도물량 약 5000개를 판매한다. 가격은 1만6000원이다.

아울러 7일 오후에는 나머지 점포에도 추가물량 5000여개를 투입해 판매처를 전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판매량을 늘려 10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판매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선보이는 제품은 휴마시스에서 제조한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콧속(비강)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양성·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원선 기자



#3D 런웨이 #AI 추천... 패션업계, 마테크로 고객경험 넓힌다

(마케팅+테크놀로지)

헤지스, 가상런웨이 'HVR' 진행
바바패션, AI가 퍼스널쇼퍼 역할
에이블리,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헤지스가 21FW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국내 최초의 3D 가상 런웨이 '헤지스 버추얼 런웨이(HVR)'를 아시아 5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사진은 HVR 리허설 장면. /LF

물건 선택부터 주문까지 3D, 인공지능 같은 기술(Technology)에 마케팅(Marketing)이 결합하는 '마테크' 경향이 패션업계에 짙어지고 있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주요 패션 업체들이 최근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개인화 서비스,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F의 헤지스는 2021년 가을·겨울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6월 헤지스 닷컴에서 국내 최초의 3D 가상 런웨이 헤지스 버추얼 런웨이(HVR)를 진행한다.

최신 3D 디자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헤지스 버추얼 런웨이는 언제 어디서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안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관람객 모두를 특정 소수만 누려왔던 관람석 맨 앞줄

로 초대해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폐쇄적이었던 패션쇼를 아무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헤지스만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승화시켰다.

이 HVR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처음으로 동시 진행된다. 헤지스는 이번 런웨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 및 소비자보다 적극적

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훈 LF 헤지스 브랜드 총괄 CD(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 "HVR은 새로운 기술과 전통의 만남을 통해 어디에서나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패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경험 강화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바패션도 인공지능(AI) 및 마테크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몰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바바패션은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화에 초점을 맞춰 퍼스널 쇼퍼의 역할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AI가 대신하게 한다. 최근 검색어, 상품 클릭 정보, 구매 내역 등 고객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제고한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는 토탈 케어를 제공한다. 개인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AI가 소재에서부터, 모양, 디테일 등으로 구분해 취향별 의류 상품을 제안하고, 그 스타일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향수, 바다·해어케어까지 업선해 보여준다.

이 토탈케어 서비스는 쇼핑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대폭 줄였다. AI가 의류 등 상품 이미지를 인식해 0.5초 이내에 속성정보를 파악하고 유사 상품을 고객에게 알려 발품 팔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과 일치하는 상품을 모아볼 수 있다.

성별과 연령대로 타겟을 세분화하고, 사이즈 데이터를 학습시킨 사이즈 예측 머신러닝으로 구매 이력 없는 신

상품도 고객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해 온라인 쇼핑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한편,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한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패션 쇼핑 앱 '에이블리'는 지난달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420만명을 달성했다.

에이블리 앱 MAU는 420만은 현재까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앱에 접속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도 9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규 유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했으며, 주문 수도 2배 증가했다.

에이블리의 견고한 성장 동력은 역시 '상품 짬'과 '구매 매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스타일의 상품과 이용자를 취향 기반으로 연결해주는 'AI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 있다. 에이블리 앱 내 상품 리뷰는 누적 1300만 개가 축적됐으며, '상품 짬' 수는 누적 3억 개를 돌파했다. 에이블리 앱에 쌓이는 방대한 데이터로 더 정교해진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에게 잘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해준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oouil.co.kr

“구내식당에 수제버거”... 아워홈, 메뉴 차별화 가정용 치매 치료로봇으로 인지기능 개선

소비자 취향 고려한 맞춤 식단
테이크아웃 메뉴·베이커리 등



아워홈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플라이 투 메뉴(Fly to menu)'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습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 식사 취향을 고려한 맞춤 식단을 대거 선보이며 구내식당 메뉴 차별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아워홈은 1인 좌석 비중 증가 및 다양한 식단 선호 트렌드를 반영해 구내식당 메뉴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워홈은 비대면 환경에서 점심을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테이크아웃 메뉴, 베이커리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워홈은 최근 구내식당에 베이커리 코너를 신설했다. 임직원에게 다채로운 간식 제공을 원하는 고객사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또 프리미엄 수제버거 코너를 론칭했다. 버거 전 메뉴는 구내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 클래식 버거, 크리스

피치킨버거, 언양식불고기버거 등 정통 버거와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버거 등 13종의 메뉴를 갖췄다. 엄선한 식재료와 부드러운 번, 갓 구운 패티에 특제 소스를 더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 론칭한 구내식당 전용 테이크아웃 브랜드 '인더박스'는 샐러드, 도시락, 무스비 등 간편하게 영양가 높은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인더박스 전 메뉴는 매일 아침 구내

식당에서 당일 공수한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제조해 신선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트렌드를 고려한 메뉴 구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플라이 투 메뉴'는 해외여행을 즐기지 못해 아쉬워하는 고객을 위해 기획됐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식, 일식 외에도 전세계 국가의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고객 반응이 좋아 정기 운영 메뉴로 자리 잡았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가정용 치매 치료로봇으로 인지기능 개선

이대목동병원, 비약물 치료 가능성 확인

이대목동병원이 가정용 치매 치료로봇을 통해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입증했다. 치매 분야 비약물 치료 가능성을 열어준 첫 연구 결과로 주목을 받는다.

이대목동병원은 신경과 이은혜 전공의가 '인지 치료 로봇'을 이용한 반복 훈련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입증해, 지난 달 7일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가정용 로봇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정량화해 전향적 무작위대조 시험연구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하 교수 연구

팀은 4주 간 경도인지장애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개발한 가정용 인지 치료 로봇 '보미'를 활용, 매일 최소 1시간, 1주일에 5회 이상 인지 훈련을 하도록 했다. '보미'는 이대목동병원이 개발한 가정용 인지 치료 로봇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계산능력, 전두엽 집행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다. 그 결과, 로봇 인지 훈련을 받은 그룹에서 대조군보다 시공간 작업 기억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의 제1저자인 이은혜 전공의는 "그간 많은 인지 치료 로봇들이 개발됐으나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를 통해 로봇 치료의 효과를 명백히 밝혀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el@

오늘의 날씨

5월 7일 (금)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13 ~ 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0 | 해질 / 19:27

연천 10/19, 동두천 11/19, 가평 8/18, 양평 10/20, 용인 14/18, 평택 11/19, 수원 14/18, 인천 13/17, 서울 13/18, 파주 9/19, 백령도 10/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롯데제과
월드콘 까마로사 딸기 선배

롯데제과가 국가대표 콘아이스크림 월드콘의 신제품 '월드콘 까마로사 딸기'를 6일 선보였다.

까마로사 딸기는 알이 크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딸기의 고급 품종이다. 이번 제품에는 까마로사 딸기를 사용한 딸기다이스와 딸기시럽이 들어있다. '월드콘 까마로사 딸기'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검정색 패키지를 적용했다. /조효정 기자

아이오페, 남성 안티에이징 신제품 선배

바이오 리독스 성분으로 맑은 피부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가 남자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더하는 남성 안티에이징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아이오페는 '맨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와 '맨 안티에이징 에멀전 EX'를 지난 1일 동시에 선보였다.

6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야외 활동과 흡연 등으로 인해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노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피부 노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항산화력을 비롯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중요하다. 아이오페는 항산화와 피부 활력에 좋은 제품 2종을 동시에 내놓으며 남성 안티에이징 뷰티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아이오페 맨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는 세안 후 첫 단계에 바르는 제품이다. 주요 성분인 바이오 리독스(Bio-redox)가 피부를 맑게 가꿔준다. 페퍼민트 추출물은 면도 등 생활 속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관리해준다.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빠른 것도 특징이다.

아이오페 맨 안티에이징 에멀전 EX는 주름을 개선하고 탄력을 강화하는 안티에이징 보습 제품이다. 콩 추출물과 타우린 성분이 피부 항산화와 활력을 높여주며, 아데노신 성분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산뜻하면서 피부에 보습감을 주는 제형으로 만들어졌다. 맨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를 사용한 후 바르면 된다. /원은미 기자

6만명이 신고 검증한
기능성 오소틱(특수깔창)!

등산·골프·각종 스포츠
활동시 부상 방지!

조그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신 분!

아웃도어 동호회에서
단체주문 성황!

오래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걸어야 하는 분!

족부클리닉병원에서
추천하는 발 보조기!

전국 120여 병원에서 사용 중

구입 및 단체 주문 문의
031-908-9810

족부의학 전문가(Podiatrist)
신발치료사(Pedorthist)가 개발한 오소틱(ortho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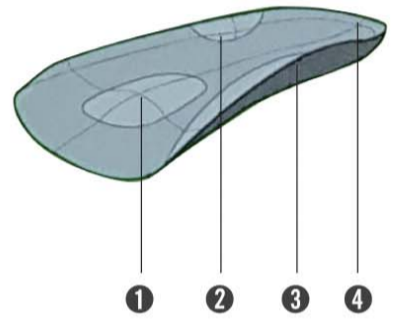
의사들이 추천하는
고기능성 인솔

바이오풋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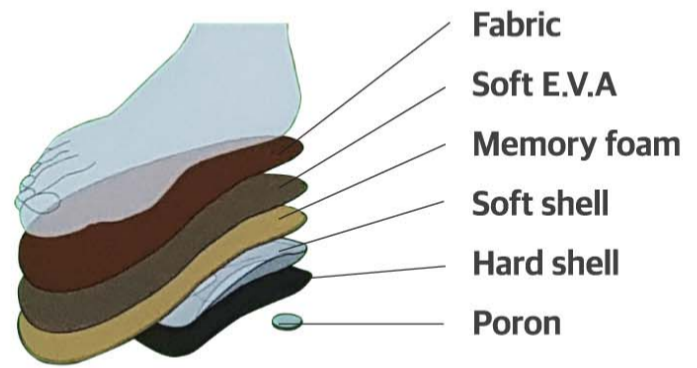
쇼핑몰 편입에서 **바이오풋** 을 검색하세요.

뛰어난 4가지 기능

- ① **Metatarsal Pad** : Distributes the foot pressure evenly.
- ② **Cuboid pad** : Supports excessive lateral motion of the foot.
- ③ **Arch Support** : Supports the arch of the foot.
- ④ **Heel Cup** : Keep the heel inside the cup for stability.



세계 최초 6 Layer 구조



6 layer engineered structure relieves heel pain and plantar fasciitis. Fatigue foot supported through added shock absorption.

국내 제조 / 가격 3만원

사이즈(5mm 단위로 잘라서 사용 가능)

- A1 215~225mm • A4 260~270mm
- A2 230~240mm • A5 275~285mm
- A3 245~255mm

※ 기존 깔창을 제거한 후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세요.



제조·판매



바이오메카닉스(주)
www.biomecha.co.kr



PedCO 사회적협동조합
페도틱코리아
Social co-op Pedorthics Korea
보건의료 전문기업

보건복지부 인가번호 제477호
사회적협동조합 페도틱코리아
http://pedco.pedorthic.co.kr
T. 031-908-9810



에버랜드, 프랑스 파리 테마공간 마련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5월을 맞아 14일부터 에버랜드에 야외 로즈가든을 프랑스 파리 테마 공간으로 꾸민다고 6일 밝혔다. 에버랜드는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 등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기분을 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에버랜드에서도 이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힐링과 휴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삼성물산



중기중앙회-하나카드, 소상공인 지원 맞손

중기중앙회와 하나카드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노란우산 가입업주 대행은 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카드업계 중에선 하나카드가 처음이다. (왼쪽 5번째부터)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LG하우시스, 신한카드와 카드 출시 협약

LG하우시스는 6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LG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점점에서 LG하우시스 강계웅 대표,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Z-IN 인테리어 카드 출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하우시스 강계웅 대표(왼쪽)가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NH농협생명, 지역사회 나눔 ESG경영 앞장

NH농협생명은 '사회공헌 애쓰자' 실천을 위해 지난 4일 대표이사 및 임직원 25명과 '함께하는 마을'인 경기도 여주시 도전4리를 찾아 농가일을 도왔다. 김인태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병길 여주농협 조합장(오른쪽 네번째), 마을주민 및 농협생명 임직원인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롯데홈쇼핑, 독거노인에 '건강백세꾸러미' 전달

롯데홈쇼핑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4일 영등포 지역 독거노인 140가구에 '건강백세꾸러미'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윤지환 마케팅부문장(왼쪽)과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박화선 사무국장이 지난 4일 '건강백세꾸러미 나눔'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로트(Lot) 518'이라는 와인이 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는 아마 와인 애호가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바로 호주의 국보급 와이너리 펜폴즈다. '펜폴즈 그랜지'는 호주 국가문화재로 등재돼 있을 정도다. 로트518은 호주의 이름난 와이너리가 중국 고객들을 위해 내놓은 주정강화 와인이다. 와인병에도 대나무가 그려져 있다. 주정강화 와인이란 와인에 주정(증류주)을 섞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이다. 보통은 포도를 증류한 브랜디를 사용하는데 로트518은 중국술인 바이주(白酒)를 섞었다. 와인 전문가가 아닌 와인 초보자가 봐도 와인과 바이주의 조합은 미스매치다. 바이주는 수수 등을 누룩으로 발효시킨 증류주다. 주정강화

외교전쟁에 새우등 터진 와인

와인의 주정으로 쓰기엔 특유의 독특한 향이 너무 강하다. 펜폴즈는 로트518을 내놓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전통적인 와인 제조의 관습을 깨뜨린 혁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누가 봐도 중국에 보내는 격한 애정표시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호주와인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중국은 매년 호주 와인 총생산량의 40% 가까이 수입했다. 허니문 관계가 깨진 것은 지난해 중국과 호주가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다.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호주산 농산물과 소고기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와인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고 최고 200%가 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와인 같은 주류는 세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와인 가격이 경쟁력이 없는 것도, 홍콩

의 와인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다 세금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초 프랑스 와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5%의

특별적 관세로 작년 미국의 프랑스 와인 수입은 18%나 줄었다. 관세 수준도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경제 보복의 희생양이 됐다면 단순히 관세부과로 높아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 실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호주산 와인 수입 제한으로 지난달 선전항에만 8000리터가 넘는 호주산 와인이 압류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주의 대중 와인 수출규모는 이전 대비 96%나 급감했다. 누군가의 위기는 다른 이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법. 호주의 와인 산업은 위기를 맞으면서 세계 최대 소비처인 중국시장을 노리는 곳이 많아졌다. 첫번째 수혜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남아공 와인은 중국과 호주의 외교 전쟁 이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졌다. SCMP에 따르면 중국으로의 남아공 와인 수출은 지난 석달 동안 50%나 급증했다. /펜폴즈닷컴 /smahn1@metroseoul.co.kr



Lot.518 와인. /펜폴즈닷컴

LG전자, 러시아서 헌혈 중요성 알린다

VOD 플랫폼사 IVI와 손잡고 '라이프 이즈 굿' 캠페인 펼쳐

LG전자가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헌혈 전도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라이프 이즈 굿' 캠페인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VOD(video on demand) 플랫폼 회사 'IVI'와 손잡고다. LG전자는 러시아 지역사회에 헌혈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러시아 시민들은 물론 우주 비행사, 영화감독, 배우 등 현지 인플루언서도 헌혈에 동참했다. LG전자는 행사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LGLifeIsGood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한 콘텐츠 덕분에



LG전자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VOD(video on demand) 플랫폼 회사 "IVI"와 손잡고 모스크바에서 "라이프 이즈 굿" 캠페인을 펼쳤다.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앞서 LG전자는 러시아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9년부터 100차례 이상 헌혈행사를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KT 인사동 전통물품 담은 '사랑의 효박스' 판매

KT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랑의 효(孝)박스' 활동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랑의 효박스는 KT의 사랑의 시리즈 일곱 번째 프로젝트다. 사랑의 효박스는 서울 종로구 꽃집, 인사동 전통 물품을 담아 만든 패키지 상품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화분, 전통 꽃자수 마스크, 전통 자수 용돈 주머니, 미세먼지 필터 등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4종 물품으로 구성됐다. 회사와 직원이 각 1만원씩 구매 비용을 부담한다. KT는 오늘부터 이를 간 나눠정(情) 앱을 통해 사랑의 효박스 2000개를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인근 독거 어르신에게 200개의 효박스를 기부한다. 나눠정 앱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만든 KT의 착한 소비 플랫폼이다. KTESG경영추진실장 이선주 상무는 "KT는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하는 '사랑의 시리즈'로 나눔실천과 함께 KT만의 차별화된 ES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SPC그룹, 결식아동 300명 식사 지원

SPC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인 SPC행복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결식아동 식사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월드비전과 함께 비대면 고객참여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되는 '주말에 뭐 먹니?'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객이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해피앱)을 통해 '좋아요' 또는 '댓글'로 응원 참여를 하면, 1건당 1식을 적립하여 SPC행

복재단이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캠페인 종료 후 전국의 결식아동 300여명에게 4주간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주말에 먹을 수 있는 SPC그룹 식사용 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SPC행복재단은 파리기프트 가맹점과 지역아동센터가 1:1 결연을 맺고 케이크를 지원하는 'SPC해피퍼스테이파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500여 곳의 아동보육시설에 생일케익을 선물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사랑의 효박스. /KT

투자 광풍의 시대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 부동산,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가상화폐)까지. 투자 광풍의 시대다. 짧은세대는 '코인의 위험보다 내 인생이 더 위험하다'며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 주변의 경고음은 들리지 않는다. 올 1분기 빙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250만명 가운데 2030 세대 비중은 63.5%. 60대의 은퇴자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세사람만 모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다. 정보도 많다. 유튜브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그것이 가짜이든 진짜이든) 정보를 접한다.

#. 작년 7월 이후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40%대.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을 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었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지역 새 집을 찾아 나섰다.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불과 몇 개월새 호가가 2억~3억원 뛰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원, 수도권 아파

트리의 중위 매매가격은 7억원선. 스물 다섯번(2·4대책까지)의 부동산대책을 내렸던 정부다. 그러더니 서울, 부산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책을 인정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 신한은행이 최근 전국 만 20~64세 경제 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20대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 청년층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것. 지난 2019년 주식 투자율이 23.9%였던 20대의 지난해 비율은 39.2%로 높아졌다. 주식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작년에 신규 종목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주식 거래자 중 85.8%가 지난해 처음으로 주식을 샀다. 올들어 지난 4일까지 개미들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50조4654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이미 지난해 순매수 금액(34조367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주식투자 전성시대다. 개미들 사이에선 '가만 있다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FOMO)이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이번 생에는 집을 살 수 없다며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눈을 돌

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는 250만개를 넘는다. 지난해 말(133만6425개)과 비교해 3개월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간다. 쉬는 시간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는 '폐인(극단적으로 심취한 사람)'이 늘고 있다. 2017년 처럼 거품이 꺼진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 지난해 말 은퇴한 한 선배와 차에 동승한 적이 있다. 그는 대화 도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 봤다. 표정도 순간순간 바뀌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어"라고. 그 선배는 "500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 정도의 수익률이면 용돈은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상화폐 투자액이 늘었다고 한다.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에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 5만7000여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샀다. 문제는 실제 수익률이다. 은퇴자금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대박'을 쫓다가 '쭈박'을 칠 수도 있다. 주식, 가상화폐 모두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누구도 손실을 채워주지 않는다. "선배, 그만 그만 하세요."

/파이낸스&마켓뷰 bluesky3@metroseoul.co.kr

배달음식 하나 시켰는데 포장용기는 무더기



김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주간 배달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크게 화제가 됐다. 게시물에는 100개에 육박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7~8평 남짓한 원룸을 가득 채우고 있다. 비대면 생활과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대신 배달·포장 주문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크게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선별시설에서 처

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는 14.4% 늘었다.

사회 곳곳에서 '필환경'을 외치고 있지만, 배달 시장만큼은 예외인 것이다. 하나의 메뉴를 시키더라도 밥, 반찬, 국 등이 각기 다른 포장재에 담겨 오기 때문에 시킨 음식 수보다 더 많은 포장재가 함께 팔려오는 게 사실이다.

배달앱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며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옵션을 추가했지만 일회용품 줄이기 효과는 미비하다. 넘쳐나는 포장용기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포장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배달앱 회사들이 배달로 인해 발

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회용기 사용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로 하여금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단지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언제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손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도 다회용기를 사용을 권장하고 무엇보다 시민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구의 날'에만 반짝 환경오염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5월 7일 (금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송아지를 낳듯 재물이는다. 48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은 목욕이 최고일 것이다. 60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2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4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 소** 37년생 오늘보다 높은 고지를 향해볼 것. 49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1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빛을 갚는 날이다. 73년생 어제의 이웃이 오늘은 배운명덕 할 수. 85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 호랑이** 38년생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마라. 5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62년생 가족의 위로가 그리운 날. 74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된다. 86년생 강남에서 걱정이 해소되고 강북에서 마음이 즐겁다.
- 토끼** 39년생 아직도 귀중한 시간은 많이 있다. 51년생 웃으며 병 주고 약 주는 시누가 밉상이다. 63년생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날. 75년생 해 오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87년생 머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좋다.
- 염** 40년생 부지런하니 늘 기쁨이 공존하여 감사. 52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4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 76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88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다는 뜻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뱀** 41년생 몸은 수고로워도 이득은 발생. 53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정의 행복을 먼저 챙기자. 65년생 오늘의 주인공이니 무슨 일에도 참여. 77년생 길 떠나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89년생 남의 흉을 감춰주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
- 말** 42년생 아침부터 산행을 가보자. 54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66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78년생 흰색 옷을 입어보라 기쁜 소식이 온다. 9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보물이다.
- 양** 43년생 게으름은 몸을 더 수고롭게 만든다. 5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을 하게 된다. 67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기쁘다. 79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91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보라.
- 원숭이** 44년생 자식자랑보다는 겸손을. 56년생 파란색과 숫자 9가 행운을 준다. 68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나에게도 이익. 80년생 남편이 소중하니 외출보다는 집안일이 우선. 92년생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일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 닭** 45년생 남의 단점을 보려면 자신이 피곤. 5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69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니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당다리 걸치다 양 쪽을 다 놓친다. 93년생 스승님과 협업을 도움을 주니 좋다.
- 개** 4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70년생 작은 부주의로 큰 계약을 망칠 수 있다. 82년생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94년생 얽지른 물은 담지 못한다.
- 돼지** 47년생 새로운 일이 기대만큼 실리가 없다. 59년생 만나느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71년생 타인의 실수를 보듬어 주어야할 때. 83년생 가족 간에 공과사를 다투어 일이 생긴다. 95년생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날수 있다.

김상희의四季

어머니, 위대한 이름



어느 작가의 글에선가 세상에서 가장 인쇄심이 강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글을 봤다. "주변에서 모두들 나를 정신과에 한 번 데려가 보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무한한 애정으로 감싸며 말이다." 슬회하며 작가는 덧붙인다. 만약 어머니가 인쇄심이 강한 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들에 대한 신뢰와 지혜가 그 인쇄심을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남의 말과 통념에 따라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불안해하지 않으며 사랑만 보여준 것이다.

사랑하는 모성도 각양이나 보편적 엄마들 같으면 주변의 등쌀에 떠밀려서 또는 스스로 똑똑한 엄마임을 자처하며 심리전문병원을 탐색하여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신경안정제 복용을 시키고 했을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그 어머니들 역시 훌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두들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명언까지 있지 않은가.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는 대단한 망나니 소리를 들었으나 후에는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그 때 그는 말한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덧붙여 "어머니의 기도는 자신을 거짓으로부터 구원을 한 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바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와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 뿐이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그저 경쟁에서 이기라고 불철주야 헬리콥터 맘을 자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2 | | 4 | 6 | 7 | | | 9 |
| 6 | | | | | | | | 2 |
| | | 5 | | | | 4 | | |
| | | 1 | 8 | | 4 | 3 | | |
| | | 6 | | | | 2 | | |
| 7 | | | | | | | | 5 |
| | 6 | | 2 | 5 | 3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4 | 3 |
| | | | | | | | | 6 |
| | | 2 | 8 | | | | | 1 |
| | | 3 | | | 9 | | | 7 |
| | | | | | | | | |
| 1 | | | 5 | | | | 6 | |
| 3 | | | | | | 6 | 9 | |
| 7 | | | | | | | | |
| 2 | 1 | 9 | 4 | | | | | |

정답

| | | | | | | | | | |
|---|---|---|---|---|---|---|---|---|---|
| 8 | 2 | 6 | 9 | 1 | 2 | 4 | 7 | 5 | 8 |
| 8 | 7 | 2 | 8 | 9 | 2 | 6 | 9 | 1 | |
| 9 | 9 | 1 | 8 | 7 | 6 | 2 | 8 | 2 | |
| 2 | 1 | 2 | 9 | 6 | 8 | 9 | 8 | 7 | |
| 9 | 9 | 8 | 7 | 2 | 6 | 9 | 9 | 2 | |
| 6 | 8 | 7 | 1 | 2 | 9 | 9 | 2 | 8 | |
| 2 | 2 | 9 | 6 | 8 | 1 | 8 | 7 | 9 | |
| 1 | 6 | 8 | 2 | 9 | 7 | 8 | 2 | 9 | |
| 7 | 8 | 9 | 2 | 8 | 9 | 2 | 1 | 6 | |

| | | | | | | | | | |
|---|---|---|---|---|---|---|---|---|--|
| 9 | 9 | 8 | 8 | 2 | 6 | 9 | 9 | 2 | |
| 7 | 8 | 1 | 8 | 2 | 6 | 9 | 9 | 2 | |
| 2 | 2 | 6 | 9 | 9 | 1 | 7 | 8 | 8 | |
| 8 | 2 | 9 | 7 | 8 | 9 | 2 | 6 | 1 | |
| 6 | 9 | 8 | 2 | 1 | 2 | 8 | 7 | 9 | |
| 2 | 1 | 7 | 6 | 8 | 9 | 8 | 2 | 9 | |
| 1 | 6 | 2 | 9 | 9 | 8 | 2 | 8 | 7 | |
| 9 | 8 | 9 | 2 | 7 | 8 | 1 | 2 | 6 | |
| 8 | 7 | 2 | 1 | 6 | 2 | 9 | 9 | 8 | |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4688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0792호 | |



아파트 정원의 상징인 살구나무

200년된 살구나무와 나무 1000그루의 앙상블 초록빛으로 물든 이 라이프, 활력이 절로

아파트의 미학(美學)

<9>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정원의 상징 최장수 살구나무 뿌리 하나 훼손하지 않고 보존 나무 중심으로 큰 정원 만들어

소나무 250주, 왕벚나무 500주 대형목 200주 등 녹지율 돋보여

산책·보행로엔 형형색색 꽃 만발 창밖은 북한산뷰, 지척엔 백련산



지난 3일 방문한 서울 은평구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에는 200년 된 수호신이 아파트 단지를 지키고 있었다. 지난 2004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된 국내 최장수 토종 살구나무다.

이 아파트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응암2구역에 재개발해 세워졌다. 규모는 2659가구, 총 32동의 대단지다.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은 입주 당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받았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도 금하고 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물답게 단지 전체가 커다란 정원으로 이뤄졌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살구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나무 밑에는 '보호수'라고 적힌 팻말이 놓였다.

DL이앤씨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살구나무로 높이 13m, 어른 허리 높이에서 둘레가 250cm이다. 처음 아파트를 지을 당시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내린 자연 지반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특수 설계를 적용했다. 착박해진 기존 토양을 비옥한 흙으로 교체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약제를 살포했으며, 공사 중에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 본래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

이 아파트는 살구나무를 중심으로 큰 정원을 만들었다. '수생비오톱'이라는 이름의 연못에는 인공폭포와 분수가 설치됐다. 이어령작가의 수필 '폭포와 분수'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힘찬 물줄기

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가 정원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 마치 자연 속 계곡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녹지율은 47.2%로 4만6560㎡의 조경 시설을 갖췄다. 이외에도 250여 주의 소나무, 500여 주의 왕벚나무, 200여 주의 낙엽 대형목 등이 식재됐다.

정원에는 입주민을 위한 야외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조경을 감상하기 좋다. 살구나무가 있는 이 정원은 입주민들에게 삶의 일부가 돼 공동체를 위한 모임 장소가 되고 있다. 보호수라는 별칭대로 이 거대한 나무는 아파트 단지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원을 둘러보면서 평일 오후임에도 산책을 나온 주민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인 주민 A씨는 "하루에 한 번 씩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고 있는데 산책로마다 꽃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너무 좋다"라며 "이 정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살구나무 있는 곳'으로 통한다"고 했다.

A씨의 말대로 보행로에는 화양목을 비롯해 각종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단지를 둘러싼 외곽 보행로에도 꽃이 심어져 입주민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든다.

계다가 주변에는 백련산이 있어 '숲세권'을 형성한다. 언덕에 위치해 발코니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북한산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지하철3호선 녹번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교통편도 좋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서울시 은평구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내 연못과 정원, 조형물 모습.

/손진영 기자 s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기현 원내대표 "청년들 어두운 전망에 '영끌' '빚투'... 관심 갖겠다" /사진 뉴스스
▲ 경찰 "한강 실종 대학생 친구, 신발 왜 버렸나 밝히겠다"

▲ 경찰, 비무장지대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 봉하 노무현 묘역 간 송영길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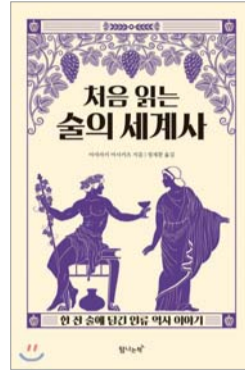
▲ 정의당도 "임혜숙·박준영 지명 철회해야... 노형욱 부적격"
▲ 김홍국, 뽕소니 혐의로 입건... "나도 피해" 반박 /사진 뉴스스

인류 행보, 술의 변화로 비교... 역사를 알면 달라지는 술맛



리더의 책장

오 세 용 스마트브루어리 대표이사(전 SK하이닉스 사장)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탐나는책, 1만6000원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술이 어떻게 분류되고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소주와 막걸리로 대표되는 우리 술이 대중적인 사랑은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술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며 술의 역사에 대해 가끔 궁금해하고 단편적인 내용을 이따금 찾아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 전 양조회사를 설립할 무렵이었다. 여러 책을 구해 다양한 지식에 접해 오다 지난 해 번역 출판된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란 책을 읽으며 내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어떻게 이렇듯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정리했을까 감탄하게 됐다.

저자인 미야자키 마사카츠는 일본인으로 사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사와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며 방송과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는 술 전문가가 아닌 사학자이다. 그래서 그의 책은 술에 대한 학문적인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술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술은 인간이 만들어 마시기 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풀이 자연 발효된 봉밀주가 술의 시초일 것이라는 설이 있고, 동물들이 모아 놓은 과일이 발효되어 술이 만들어 진 것을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맛보고 취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수렵시대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술을 채집하듯 찾아 마시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며 곡물

비교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사회, 종교 생활에 술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나 살펴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과 술의 관계도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세계 여러 술의 역사적 기원도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술들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배가 늘어나면서 맥주 생산도 활발해졌고 7~8세기 무렵에 쓴 맛을 내는 홉을 넣은 맥주가 등장했다고 한다. 남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4세가 맥주는 보리와 홉, 물로만 제조해야 한다는 맥주순수령을 발표가 오늘 날 맥주의 원형이다.

발효를 거쳐 만든 양조주를 증류하면 증류주가 되는데 증류기술의 핵심에는 증류기가 있다. 그런데 이 증류기가 원래는 연금술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증류주의 대표적인 위스키는 5세기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만 증명되지 않았고, 1172년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했을 때 그곳에 맥주를 증류한 술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술의 역사와 제조법을 알면 술 맛이 달라진다고 한다. 지나치지 않으면 음주는 사회생활과 정서적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취하는 것을 벗어나 맛과 향을 음미하는 음주 습관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 한다.

-오세용 스마트브루어리 대표이사(전 SK하이닉스 사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추천했다.

2년 전 양조회사 설립할 무렵 '술의 역사'에 관심 인간 사회·종교 생활의 매개체 '술' 역할 등 살펴 익숙한 와인·맥주 등의 익숙하지 않은 역사 알려

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음이 벽화나 발굴된 토기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다 유라시아 여러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7~14세기에는 여러 술이 사방으로 전파되고 증류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15~16세기의 대항해 시대에는 각 지역의 과일과 향신료를 이용한 술이 등장했고, 산업혁명기에는 술의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되고 칵테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인류의 행보와 역사를 술의 변화로

와인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져 주변으로 전파됐다고 하는데 이란 북부 유역에서 출토된 7400년전 항아리에서 와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 기원전 6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전파됐고 크레타 섬을 거쳐 지중해 주변으로 확산됐다고 한다.

맥주는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럽에서 보리 재

주말은 책과 함께

멀게만 느끼던 '詩'에 징검다리 놔준 책

일기를 안 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모든 날의 기록에 코멘트를 달아주었던 좋은 선생님을 만나 열심히 썼던 적도 있지만 강산이 두번도 더 변하고 남았을 적 옛일이 됐다.

버스 정류장에서 외계 생명체를 본(?) 날 감격에 벅차 일기장에 쓴 시를 동생이 가족들 앞에서 신나게 읊어대고 모두가 발을 구르며 폭소할 날, 자존심에 생체가 나 펜대를 꺾었다. 흑역사의 원인이 된 시와도 이별했다. 황현산의 '우물에서 하늘 보기'는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시의 곁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준 징검다리에 놓인 디딤돌 같은 책이다.

최승자 시인은 '세기말'이란 시에서 "칠십년대는 공포였고 팔십년대는 치욕이었다. 이제 이 세기말은 내게 무슨 낙인을 찍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저자는 "돌이켜보면 저 공포와 저 치욕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행'을 가리는 '이름 붙일 수 있는 불행'이었을 뿐이었다"면서 "유령의 군대와 싸우는



우물에서 하늘 보기

황현산 지음/삼인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벌써 유령 아닐까"라고 응답한다.

책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뿌리 뽑힌 상태에서 시작돼 불안이 수시로 찾아오고 이를 욕망이 가린다.

욕망조차 비어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해선 또 다른 욕망이 필요하다. 욕망을 욕망으로 채우는 일이 되풀이되는 세계에서 달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을 때에야 문득 사람들은 뿌리 없이 유령과 싸우고 있는 제

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찍이 시인은 '자본죽'에서 "새들도 자본 자본 하며 울 날이 오리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저자는 "그날은 재빨리 찾아왔고 다른 세계를 여행하던 최승자는 바로 그런 날들의 한복판에서 우리 앞에 한 번 잠시 나타났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최승자는 자기 내장을 다 드러내는 사람의 선연한 말을 비수처럼 내던져, 한 번 귀 기울인 사람이라면 결코 잊어 버릴 수 없는 목소리를 만들었다. 자신을 배설물로, 잉여물로 규정하는 그에게는 감출 것이 없었다"고. 그의 시를 안 읽고 배길 수 없다. 시(詩)와 서막한 이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시와 시인에 관한 이야기 27편을 묶은 시화집.

272쪽, 1만3000원.

추신: 외계 생명체의 정체는 비문증으로 인한 헛것이었습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딜쿠샤

시인은시를 쓰기 위해 서울시내 곳곳을 누빈다. '만리동 책방만유인력'부터 '대림동 중앙시장 돌아보기', '이현역 나빌레라'에 이르기까지 책에 실린 글은 모두 서울의 지명을 품고 있다.

온종일 쇠방치를 두드려다 급호동의 고깃집 테이블에 웅기종기 모여 피로를 녹이는 철공소 인부들, 대림동 중앙시장 좌판 뒤에 쪼그려 앉은 나이 든 상인, 손기정 공원에 모과가 떨어져 구르는 장면을 시인은 하염없이 바라본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아닌 골목 언저리에서 도시가 꼭꼭 숨겨둔 이야기를 찾아내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들리고 싶지 않지만 결국 들려버린 어떤 고독사를, 검게 탄 누룽지처럼 언덕에 붙은 마을을 보여준다. "울지로3가 골목은 꼭 순대를 닮았지. 소문과 맛의 길이를 재어본들 비밀은 비밀. 줄지처럼 헛바닥이 길어진 사람들. 간절함이 구불구불 산수갑산인데"(산수갑산 아바이순대) 중). 178쪽, 1만원.

숫자를 믿는다

전장석 지음/상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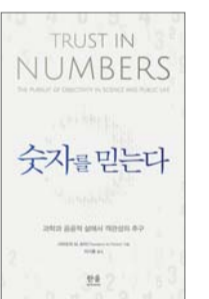
시아더어 M. 포터 지음/이기홍 옮김/한울아카데미

'통계(statistics)'는 '국가의 과학(science of the state)'을 가리킨다. 국가의 인구와 국민총생산, 실업률 등의 숫자는 사람들의 삶을 집약해 표현할 뿐 아니라 온갖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책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숫자를 숭배하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표준화를 요구받는 숫자들은 타협과 협약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숫자의 심층적 의미와 신념을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학생들을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능지수(IQ) 검사, 공공의 분위기를 수량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약물의 인허가를 돕는 정교한 통계적 방법론들, 공공사업의 평가에 사용되는 비용-편익 분석 등 저자는 기계적 객관성과 몰주관성을 추구하는 숫자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512쪽, 5만90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바이든, '법인세 인상' 타협 시사... "다음 주 공화당 만나" /사진 뉴시스
- ▲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왕, 징역 10개월 추가 선고

- ▲ 中,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전면 중단 선언...보복조치 일환
- ▲ 베이조스 '블루오리진' 7월20일 우주 간다...한 자리는 경매로



- ▲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서에 대만해협 안정 촉구 /사진 뉴시스
- ▲ 중국 노동절 연휴 박스오피스 2900억원...사상 최대기록



[산업] 상용차 렉스턴 스포츠 칸 “픽업트럭 맛집” 08



Life

[라이프] “고객 이동 편리하게” 유통업계 모빌리티 사업 확대 11



답답한 속·칼로리 걱정까지 상쾌함 충전 ‘스프라이트 샤워’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는 세계 1등(글로벌 데이터 조사, 2019년 글로벌 판매량 기준) 사이다 브랜드다.

1961년 미국에서 ‘특 쓰는 상큼함을 맛보세요(Taste Its Tingly Tartness)’ 브랜드 메시지와 함께 첫 선을 보인 이후, 글로벌로 확대되며 오랜 시간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상쾌한 일상을 책임져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2년에 출시된 이후, 입안 가득 퍼지는 레몬라임향과 기분전환까지 해주는 강렬한 상쾌함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어떤 종류의 음식과도 잘 어울려 풍미를 돋우고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과의 단짝 음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스프라이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초록색이다. 첫 출시 당시부터 지켜오던 초록색 페트병은 2019년 4월부터 투명한 무색페트병으로 교체됐다. 유색 페트병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어 이를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를 결정했다.



관객들과 ‘워터건 배틀’하는 브랜드 모델 청하.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 저격 위한 노력

스프라이트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 3월 스프라이트의 강렬한 상쾌함을 제로 칼로리로부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프라이트 제로’를 출시했다. 최근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제로 칼로리에 대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한국에서도 선보이게 된 것이다.

특히 스프라이트 오리지널의 강렬하고 시원한 상쾌함은 그대로 제로 칼로리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제로로 상쾌한 맛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제품 패키지에도 ‘제로 콘셉트’를 강조해 스프라이트 고유의 시원한 그린 컬러를 배경으로 ‘제로 슈거(Zero Sugar)’ 문구를 상단 스파크에 담았고, 다이나믹한 스파크 모양 역시 기존 스프라이트의 밝은 노란색과 대비되는 그레이 컬러로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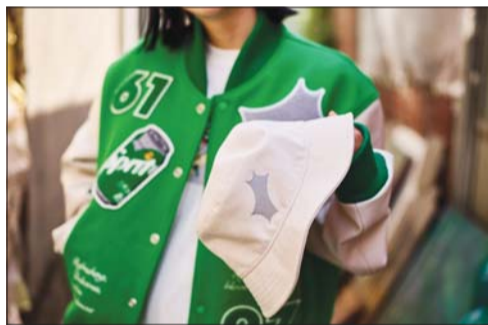
◆시원하게 스프라이트 샤워!

스프라이트가 국내에서 인지도를 쌓아가며 대표적인 사이다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2030 젊은 세대의 취향에 적중하는 마케팅 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각 시즌에 맞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트렌디한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실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워터밤 페스티벌에 함께 하면서 대형 스프라이트 보틀에서 뿜어



2020년 스프라이트X청하 TVC 비하인드컷.



스프라이트X카시나 컬래버레이션.

1961년 미국서 첫 선... 세계 1등 사이다 칼로리 부담 없는 스프라이트 제로 출시

워터밤 페스티벌·댄스챌린지 등 2030 맞춤 마케팅으로 인지도↑

정해인·헤리 등과 ‘Sprite&Meal’ 편집샵 브랜드 ‘카시나’와 컬래버도

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만끽하는 ‘스프라이트 샤워’로 답답한 일상을 탈출하는 상쾌한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 멀리 떠나지 않고도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내 특별한 바캉스로, 다양한 워터 어트랙션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마련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왔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했던 작년에는 나 자신을 확일화된 정체성에 가두는 대신 다양한 정체성을 짜릿하고 투명하게 분출하자는 메시지로 스프라이트X청하의 서머 캠페인 신곡 ‘Be Yourself’를 공개하고 틱톡 등에서 청하와의 댄스 챌린지 등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의 높은 참여와 공감대를 이뤄냈다.

‘Sprite&Meal’ 캠페인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배우 정해인, 가수 겸 배우 헤리, 설현 등과 함께하며 스프라이트와 함께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지친 일상을 상쾌하

게 풀어보자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스프라이트 행사 및 광고에서 함께하는 모델들도 화제가 되며 스프라이트의 젊고 시원한 이미지를 견고하게 해줬다. “넌 나를 즐거움게 해 너 너무 재미있어 좋아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너 정말 정말 스프라이트!” 라는 가사의 CM소는 1992년경 한국의 스프라이트 TVCM은 포크송 버전 및, 가수 이상은이 부른 버전으로 흘러나왔다.

2013년부터 클라라를 시작으로 스프라이트는 본격적으로 여름시즌마다 스프라이트 샤워라는 콘셉트로 광고를 시작했다. 2014년에는 헨리와 수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상쾌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후에도 강소라(2015년), 설현(2016년), 손나은(2017년), 블랙핑크(2018년), 청하(2019~2020년) 등을 앞세워 트렌디한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졌다.

◆MZ세대를 ‘취져’하는 신선한 컬래버레이션

올해 4월에는 새로운 굿즈를 통한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스트리트 편집샵 브랜드 ‘카시나’와의 힙한 패션 컬렉션을 선보이며 시선을 주목시켰다. 스프라이트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으로 고유의 강렬한 상쾌함과 국내 스트리트 컬처를 리딩해오고 있는 ‘카시나’의 유니크한 감성을 접목한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스프라이트 고유의 그린, 옐로 컬러와 스파크 등을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한 바시티 재킷, 반팔 티셔츠, 버킷햇 등을 비롯해 실용도가 높은 타포린백과 파우치, 스티커팩 등이 출시됐다.

이번 컬래버레이션 아이템은 ‘코-크 플레이(CokePLAY)’ 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바시티 재킷의 경우 코카-콜라사의 음료를 날개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자판기’ 코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충전 ‘코-크플레이 카드’로 5회 구매 시마다 바시티 재킷에 응모할 기회가 1회 주어진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스프라이트는 고유의 강렬한 상쾌함과 함께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과 트렌드를 고려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트렌디한 탄산 음료 브랜드로서 성공적인 입지를 쌓아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 1등 사이다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상쾌한 일상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베이스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양현종, 미네소타전 3⅓이닝 8K 1실점 역투...팀도 승리 /사진 뉴시스
▲ 김광현, 4이닝 1실점으로 팀 승리 건인...2승은 불발

▲ ‘아깝다 퍼펙트’ 볼티모어 민스, 노히트노런 달성
▲ 류현진이 돌아온다...7일 오클랜드전 선발 등판



▲ 김하성 “멀티 포지션 힘든 건 사실, 그래도 집중” /사진 뉴시스
▲ 첼시, 레알 마드리드 꺾고 9년 만에 유럽 챔스 결승행